

# CSU MAGAZINE

Vol. 268 2026. 상반기

조선대학교 개교 80주년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세운 오랜 배움의 탑”  
시민의 뜻으로 일군 여든 해,  
그 정신을 미래로 잇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 80주년 기념  
2026. 4 修



우리들은 황토로라도 담을 쌓고,  
창호지로라도 문을 발라,  
헛간으로 된 집에서라도 한자를 아는 사람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서,  
우리 민족 문화를 건설했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임회 권유문 중.



1949. 5. 7.

金起林 李珍模, 張亮健 岩生斗

1946



2026



06 개교 80주년 조선대학교

12 CSU FOCUS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안병욱 제22대 이사장, 조선대학교의 내일에 함께하다  
조선대-조선간호대, '통합' 최종 승인  
조선대학교, 미래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웰에이징으로 여는 조선대학교 100년의 청사진



18 CSU PEOPLE

세계로 향한 도전, 모교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_월드옥타 박종범 회장  
원대한 꿈과 실천으로 전남광주의 도약을 이끈다\_광주상공회의소 한상원 회장  
78세 만학도, 배움으로 인생 2막을 열다\_법학과 송형중 동문  
조선대학교가 기억하는 그날의 사람들\_조선대학교 민주열사  
캠퍼스에서 결혼까지, 조선대학교에서 웨딩사진 남기다\_원자력공학과 천명훈♡박가영 동문

32 CSU GLOBAL

조선대, 중국 항저우에 '글로벌 거점센터' 신설 이어 '세종학당' 2026년 신규 지정  
조선대 글로벌학부, BBQ 치킨대학서 K-푸드 산업 현장 체험  
몽골 예비 유학생 대상 '2026 CSU Summer School' 성료  
조선대, 세계 6개국 수련생과 '2026 국제태권도아카데미' 성료  
조선대, 안데스 세계은행·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와 국제협력 본격화  
조선대 K-MOOC, 한·불 수교 140주년 '대사관 공식 프로젝트' 선정

38 CSU PHOTO

42 CSU CULTURE

시의 언어로 삶을 이야기하다\_문예창작학과 진은영 교수  
2026학년도 1학기 학습성공스토리공모전 당선작(언어 너머를 듣다/청춘은 무색이다)  
CSU 북(Book) 피크닉 개최  
중앙도서관, AI 기반 학습·연구 지원 서비스 운영  
2026학년도 상반기 중앙도서관 대출 베스트 자료 20  
조선대 박물관, 유물 연구부터 전시·교육·체험까지 대학박물관 공공 역할 확대

52 조선대를 그려 봄

시민과 함께한 캠퍼스 어반스케치



54 CSU NEWS

조선대 웰에이징, 인권과 예술로 확장되다  
조선대, 학습중심 'AI 지능형 생태계' 본격화  
과기정통부 'AI·디지털 기반 창업인재양성 사업' 호남권 주관대학 선정  
'2026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AI 분야 선정  
조선대-KAI, 2026 항공우주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AI융합 과정' 최종 선정  
노후 기숙사 '글로벌백학학사'로 새 단장  
신입생 2,567명 대상 '학과로 찾아가는 진로심리검사' 성료  
'다(多)가치 전공박람회 <운명전공>' 성료  
언어융합연구소, 수어·농문화 웹드라마 '들렸는데 보이네' 공개  
조선대 약대 'CURED'×광주광역시약사회,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펼쳐  
트랙 위에서 빛난 조선대 학생들의 모빌리티 기술  
CSU Partnership  
대학·구성원 수상 성과 | 학생 성과  
[의료칼럼] 단순히 피로와 스트레스 탓일까? 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_소화기내과 김성중 교수  
병원소식 | 치과병원소식



76 교직원 소식

78 CSU DONATION

조선대 개교 80주년 기념 모금 캠페인 선포... 함께 도약하는 100년의 길  
故 김종중 명예교수, 시신기증·기부로 남긴 '마지막 수업'  
44년의 가르침, 다시 후학의 내일로\_임동윤 명예교수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공간, 새로워진 본관 1층  
故 서관영 님 유가족, 조선대에 발전기금 1천만 원 기부  
의과대학 4회 졸업생, 졸업 50주년 맞아 모교에 발전기금 1억 5천만 원 전달  
2026년 상반기 발전기금 신규 약정자

개교 80주년 기념 어반스케치 행사 '조선대를 그려 봄'에서 지역민이 바라보고 그린 조선대학교 설립기념탑이다. 설립기념탑은 7만 2천여 설립동지회원의 뜻을 기리고 시민의 힘으로 세운 민립대학의 설립 정신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그림 | 김수옥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어반스케치, 아트스페이스 소울부리 대표

표지 설명

Vol. 268 2026. 상반기

발행인 김춘성 | 발행월 2026. 8. | 발행처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 (062-230-6490)  
기획·편집 이혜진 | 사진 박건호 | 디자인 김지영





개교 80주년의 역사

# 조선대학교 개교 80주년 시대를 이어 미래를 열다

## 1946년 ~ 1969년 대한민국 유일의 민립대학으로서의 도약

- 1946. 08.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발족
- 1946. 09. 29. 광주야간대학원 개교(4학부 12학과 1,194명 정원)
- 1946. 11. 23. 조선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 1946. 12. 01.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입회권유문 발표 및 모금 활동 시작
- 1947. 12. 31. 설립동지회원 7만 2천여 명 확보
- 1948. 05. 26. 재단법인 조선대학 설립인가, 4년제 조선대학으로 개편
- 1953. 03. 10. 조선대학교(종합대학교)로 승격, 대학원(8개 과정) 설립

## 1959년 ~ 1996년 민족 국가 수립에 기여할 인재 양성 기반 구축

- 1959. ~ 1980. 단과대학 설립(약학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체육대학, 치과대학, 경상대학, 외국어대학, 미술대학)
- 1978. 12. 30. 교육대학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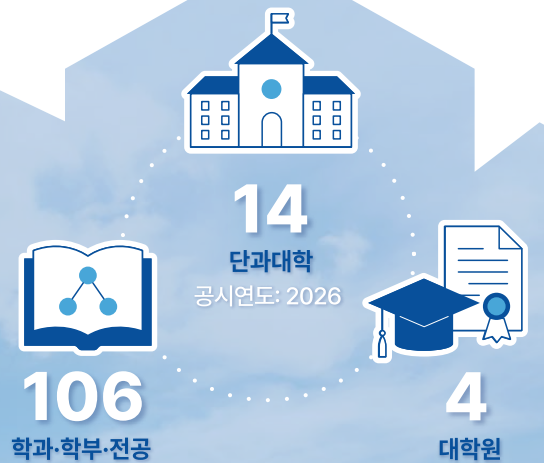
## 2000년 ~ 2009년 첨단사업과 결합한 산학협력 체제 구축

- 2000. 08. 25. 전자·정보공과대학 설립
- 2001. ~ 2009. 디자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개설
- 2001. ~ 2002. 부속기관(학군단, 기숙사(백학학사), 중앙도서관) 준공
- 2004. 04. 12.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설치
- 2005. 03. 24. 조선대학교 첨단 산학캠퍼스 준공

## 2010년 ~ 2026년 지역사회 혁신을 이끌어가는 선도대학

- 2010. 11. 22. 조선대학교 기술지주회사(주) 설립
- 2011. 11. 01. 임상약학대학원 신설
- 2017. 05. 12. 전자정보공과대학을 IT융합대학으로 명칭 변경 및 미래사회융합대학 신설
- 2022. ~ 2023. 부설연구기관 신설(우주기술연구소 및 웰에이징 메디케어연구소)
- 2022. ~ 2025. 국책사업 선정(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MRC),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사업, 대학디지털교육 역량강화(SW중심대학)사업, 퇴행성 뇌질환 중심 시니어 헬스케어 임상실증 AI플랫폼 개발 사업,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사업 선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현 ANCHOR), 글로벌대학사업 선정)
- 2025. 08. 21. 미래인재융합대학원 신설(특수대학원 5개 통합)
- 2026. 05. 29. 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 통합 승인
- 2026. 09. 29. 조선대학교 개교 80주년

## 조선대학교 주요 현황



※ 2025년 정보공시 기준



## 사람을 향한 마음, 개교 80주년을 맞은 조선대학교가

##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개교 80주년을 상징하는 브랜드 자산을 개발해 대학의 역사성과 미래 비전을 통합적으로 표현하고, 대내외 홍보 콘텐츠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80주년 엠블럼 및 슬로건 개발**  
2026. 3.

80주년 기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대학의 역사와 사료를 기록·확산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운영합니다.



**80주년 홈페이지 구축**  
2026. 4.

개교 80주년을 맞은 조선대학교의 역사적 공간을 어반스케치와 드로잉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로, 80여 명의 작가와 미술대학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교내 12개 주요 공간을 각자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대학의 풍경과 기억을 담은 작품집으로 발간합니다.



**어반스케치 '조선대를 그려 봄'**  
2026. 4. 12.

**발전기금 모금 사업**  
2026. 4. - 연속

**CSU Again 7만2천:** 7만2천여 설립 동지회원의 송고한 뜻을 이어 미래 인재를 키우고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One 4 Your Chosun:** 월 1만 원으로 함께하는 소액 정기기부 캠페인으로, 구성원과 동문, 시민의 기부 참여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대학의 지속가능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SU 장미로드:** 조선대학교 장미원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는 참여형 모금 캠페인으로, 800명의 기부자 이름을 새긴 명에 블록이 장미로드를 완성해 가며 동행의 가치를 기념합니다.



**조선대학교 80년사 편찬**  
2026. 4. - 연속



개교 80주년을 맞아 대학의 역사와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대학의 정체성과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조선대학교 80년사」를 편찬합니다. 지난 80년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미래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역사 자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민주인권동산(CSU Humanity Rose Garden)'**  
2026. 4. 28.



장미원 내 '5·18민주동산', '민주열사동산', '소녀동산'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 민주·신념·희망이라는 인간의 존엄을 담은 '민주인권동산(CSU Humanity Rose Garden)'을 조성합니다.



## 휴머니티, 혁신의 미래 조선대학교

## HUMANITY BEYOND the FUTURE

조선대학교 학생이 주도하는 대표 축제, 공연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캠퍼스의 활력을 확산하며, 지역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 축제로 운영합니다.



**GRACIA 축제**  
2026. 5. 6. ~ 5. 8.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동문과 구성원 80인이 한라산에 오르는 대표 참여 프로그램으로, 도전과 연대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며 조선대학교의 80년을 상징적으로 완주한 기념행사입니다.



**80인의 조선인 한라산 오름**  
2026. 6. 27.

80주년을 상징하는 포토 조형물을 설치하여 캠퍼스 투어 기념 공간을 조성하고, 대학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대표 홍보 랜드마크로 구축합니다.



**80주년 포토 조형물**  
2026. 9.

개교 80주년을 기념하여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대학의 연구 역량과 글로벌 위상을 확장하는 국제 학술 포럼을 개최합니다.



**국제 학술 포럼**  
2026. 9. 17.

**장미  
주간**

2026. 5. 14. ~ 5. 17.



매년 5월 장미원의 개화 시기에 운영되며, 8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하게 꾸며진 장미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봄의 절정을 함께하는 문화행사입니다.

**CSU 명예의 전당 및  
히스토리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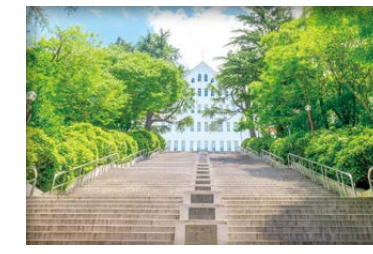
2026. 8. 14.



본관 중앙 1층 로비를 대학의 정체성과 기부자 예우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디지털 복합 리뉴얼을 통해 대학의 역사와 가치를 기록·확산하는 상징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108계단 연혁  
동판 설치**

2026. 9.



108계단에 조성된 36개의 연혁 동판 중 아직 기록되지 않은 3개의 동판을 대상으로, 개교 80년, 90년, 100년의 시간과 함께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상징적 기록 사업입니다.

**개교 80주년 기념식  
& CSU 한마음 콘서트**

2026. 9. 18.



개교 80주년 기념식은 개교 8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로, 대학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합니다. 이어지는 한마음 콘서트는 문화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개교 80주년을 축하하고,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대학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로 운영됩니다.

개교 8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062-230-609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안병욱 제22대 이사장,

## 조선대학교의 내일에 함께하다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안병욱 이사장이 제22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안병욱 신임 이사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한국역사연구회 창립 회장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제18대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역사학자이다.

그는 7만2천여 설립동지의 뜻으로 세워진 민립대학의 역사와 1·8 항쟁으로 이어진 대학 민주화의 정신을 조선대학교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자산으로 꼽는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시대라는 변화 앞에서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며 '제3의 창학'을 준비하겠다는 그는, 취임 후 첫 행보로 솔마루 학생식당에서 식사하고 기숙사와 도서관 등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생활 환경을 직접 살폈다.

안병욱 이사장에게 조선대학교의 지난 80년과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조선대학교가

많은 이들이 머물며 좋은 기억을 쌓는

'낭만의 정원'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

**Q1.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장이라는 새로운 소임을 맡으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A.** 민족·민주 사학의 선봉인 조선대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학 발전에 힘을 보탬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태산처럼 우뚝한 조선대학교에서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두렵고 무거운 마음도 큼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 구성원들께서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맡겨진 소임을 깊이 새기며 대학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Q2. 역사학자로서 바라보신 조선대학교와 대학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조선대학교는 해방 직후 7만2천여 설립동지의 뜻과 정성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입니다. 민족자주 교육을 실천하고, 1·8 항쟁을 통해 학원 민주화와 민립대학의 정체성을 되찾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대학을 지켜온 교직원과 학생, 동문들의 애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구성원들이야말로 조선대학교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자 미래를 열어갈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Q3. 오랜 시간 역사학자의 길을 걸어오시며 지켜온 신념은 무엇이며, 그 신념이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에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A.** 역사는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의 책임을 일깨우며 더 나은 미래의 길을 찾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사장으로서도 필요한 일과 해야 할 일을 소신 있게 추진하되, 구성원들의 뜻을 충실히 경청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쌓아온 역사와 정신에 부끄럽지 않도록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Q4. 임기를 마친 뒤 구성원들에게 어떤 이사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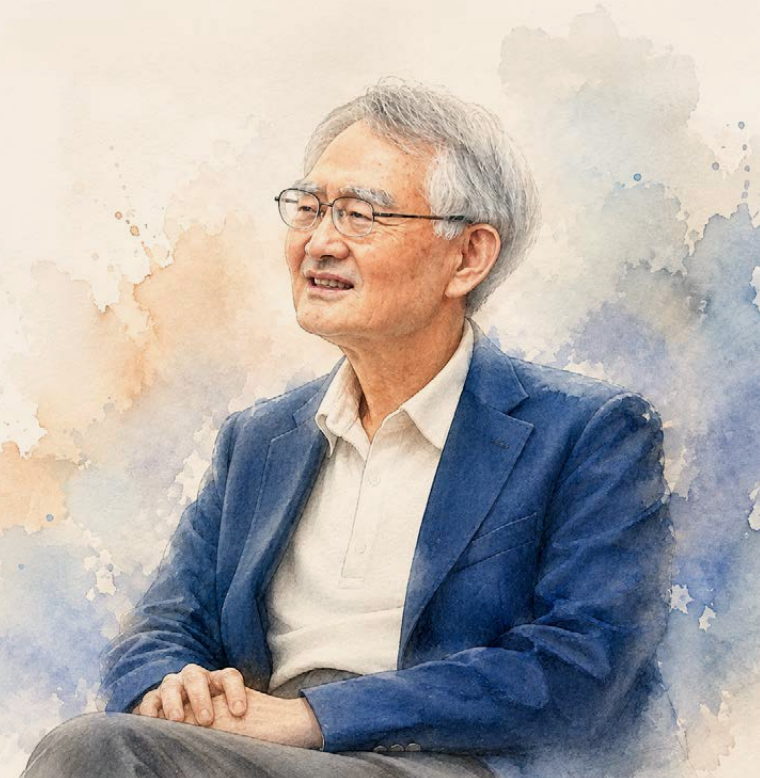
**A.** 대학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피하지 않고, 맡은 책임을 다한 이사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제 생각만을 앞세우기보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동체의 목표를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도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세로 임하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대학과 구성원들의 신뢰에 보답하는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Q5. 임기 동안 조선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가장 주력하고 싶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A.** 조선대학교가 민립대학 설립과 대학 민주화에 이어 '제3의 창학'을 이룰 수 있도록 토대를 다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기술문명이라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웰에이징 인재 양성'과 '첨단 인재 양성'을 대학 발전의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다시 쌓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잘 가꾸진 캠퍼스가 학생과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대학교가 많은 이들이 머물며 좋은 기억을 쌓는 '낭만의 정원'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법인과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뜻을 모아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6.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조선대학교의 힘은 언제나 구성원들의 애정과 헌신에서 나왔습니다. 7만2천여 지역민이 힘을 모아 대학을 세웠듯이, 오늘의 어려움 또한 우리가 공동체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마음이 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8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를 갖고 서로를 신뢰하며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조선대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 조선대-조선간호대, '통합' 최종 승인

대규모 간호 인재 양성 기반 확보... AI·웰에이징 교육 혁신 본격화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와 조선간호대학교(총장 박명희)의 통합이 교육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대규모의 간호 인재 양성 기반을 갖춘 보건의로 특성화 통합대학이 본격 출범한다.

양 대학은 2020년부터 통합 논의를 시작해 통합 업무협약 체결, 통합추진위원회 및 실무TF 운영, 교직원 및 학생 의견 수렴과 이사회 심의 등을 거쳐 약 5년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단계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과 교육 혁신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한 독립 단과대학 '간호대학'이 출범하게 되며, 오는 2027년부터 통합대학 체제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교육과정과 조직·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운영에 들어간다. 통합 간호대학은 입학정원 232명 규모로 운영되며, 보건의로 교육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합은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와 지역 보건산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양 대학은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 역량과

데이터 기반 판단 능력을 겸비한 실무형 보건의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진로 확장과 교육-창업 연계를 통해 간호 분야의 산업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지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보건의로 생태계 조성 및 정부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김춘성 총장은 “이번 통합은 조선대학교의 보건의로 분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웰에이징 글로벌대학 전략과 연계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보건의로 인재 양성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명희 총장은 “양 대학의 통합은 오랜 숙원이자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디지털 기반 간호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통해 미래 보건의로 환경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 통합 기념  
영상 바로보기

## 조선대학교, 미래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2025년 대학원 반도체융합학과 신설·2026년 반도체광공학과 개편  
지방대학활성화사업·반도체첨단패키징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성과  
첨단산학캠퍼스 중심 차세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메카로 도약



조선대학교가 반도체 소재·소자·공정·패키징과 광학 기술을 아우르는 교육·연구 기반을 구축하며 차세대 반도체 핵심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첨단패키징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돼 첨단패키징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7년간 총 105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조선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인하대학교와 36개 첨단패키징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대학활성화사업을 통해 교내 반도체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계와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 환경 조성에 힘써 왔으며, '첨단반도체소재·소자 패키징 융합전공'을 운영해 왔다. 또한 2025년 개설한 대학원 '반도체융합학과'를 통해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전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소재, 소자, 공정, 패키징 전반을 아우르는 융합 교육을 강화하며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재 배출에 주력하고 있다.

2026년에는 기존 광기술공학과를 '반도체광공학과'로 개편하고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20여 년간 축적한 광학 분야 교육·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광반도체, 레이저 응용, 광정밀계측, 반도체 공정 및 첨단패키징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첨단산학캠퍼스의 약 100평 규모 클린룸과 반도체 공정·분석 장비를 활용해 현장 밀착형 실습과 산학 연계 교육을 확대하며, 차세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웰에이징으로 여는  
조선대학교 100년의 청사진

2025년 9월 글로벌대학 선정 이후 조선대학교는 '웰에이징 Asia No.1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글로벌 분야 전반에 걸친 혁신을 본격화했다.

글로벌대학 2차년도에 접어든 지금,  
그동안의 계획이 하나씩 실행으로 이어지며 대학의 변화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학사구조 혁신과 AI 기반 연구 인프라 구축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성과다.



■ 웰에이징 인재를 키우는 3대 특성화 단과대학

글로벌대학의 핵심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웰에이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대학교는 대학 통합과 연계하여 바이오메디대학, 에이지테크대학, 라이프케어대학의 3대 특성화 단과대학과 글로벌융합스쿨을 신설하고, 학사구조를 웰에이징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학생들의 선택권도 크게 확대된다. 3대 특성화 단과대학의 광역모집과 글로벌융합스쿨 자유전공, 자유전공학부를 통해 2027학년도 입학정원의 35.15%(1,582명)를 전공자유선택으로 모집한다. 학생들은 학과의 경계를 넘어 스스로 융합전공을 설계하고, 'AI Guiding Star'와 전공 탐색 상담·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학업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이러한 교육혁신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는다. 대학이 축적해 온 연구 역량과 산업 수요를 교육과 연결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웰에이징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글로벌대학이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다.



■ 데이터를 연결해 산업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교육혁신과 함께 글로벌대학 2차년도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웰에이징 특화 AI 데이터센터 구축이다. 약 17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AI 데이터센터는 조선대학교가 보유한 광주치매코호트 데이터와 조선대병원·치과병원의 진료정보(EMR)·의료영상,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의 해조류 데이터 등 다양한 웰에이징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활용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신약과 의료기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실증 연구와 지역 산업 혁신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하반기 구축을 거쳐 2027년 3월 본격 가동될 AI 데이터센터는 학사·연구·행정 분야의 AI 활용은 물론 기업 협력, 지역 정책 연구, 해외 공동연구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조선대학교는 이러한 AI 기반 인프라를 토대로 기업이 모여드는 웰에이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기업 유치와 창업 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글로벌대학 2차년도는 대학 혁신의 청사진을 실제 성과로 연결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교육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과 AI 기반 연구·산업 혁신이 함께 추진되면서,  
조선대학교의 웰에이징 비전은 대학을 넘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혁신으로 확장되고 있다.



## 세계로 향한 도전, 모교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

박종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OKTA) 회장·영산그룹 회장

| 조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81) |



1981년 조선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종범 동문은 오스트리아에서 창업에 도전해

영산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대표적인 재외동포 기업인이다.

현재는 전 세계 76개국 157개 지회를 연결하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OKTA, 이하 월드옥타) 제23대 회장을 연임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차세대 경제인 육성에 힘쓰고 있다.

세계 시장을 누비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박 회장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모교 조선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그는 조선대학교에 총 2억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며,

모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개교 80주년을 맞아 박종범 회장에게 세계 시장에서 지켜온 신뢰의 원칙과 모교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들어봤다.

**Q1. 현재 월드옥타와 영산그룹을 이끌고 계십니다.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A.** 현재 영산그룹 회장과 월드옥타 제23대 회장으로서 기업 경영과 글로벌 한인 경제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월드옥타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을 연결해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청년과 차세대 경제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과 지회, 본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내고, 다음 세대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Q2. 조선대학교에서 보낸 학창 시절은 회장님의 삶에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A.** 조선대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했던 소중한 시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길이 막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지역민의 뜻과 힘으로 세운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사실은 제게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 여러 나라

를 오가며 기업을 경영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대학에서 품은 도전정신과 스스로 길을 개척하려는 마음은 해외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든든한 힘이 됐습니다. 지금도 조선대학교를 떠올리면 젊은 날 품었던 열정과 패기가 함께 생각납니다.

**Q3. 모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고 대학과의 협력을 이어오는 등 조선대학교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A.** 저는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학적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선대학교 동문이라는 뿌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깊습니다. 발전기금은 모교에서 받은 가르침과 자부심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큰 꿈을 펼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전달했습니다.

2024년 월드옥타와 조선대학교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한인 경제 네트워크와 가까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동문이 힘을 모아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교와 함께할 역할을 꾸준히 찾아가겠습니다.





## 원대한 꿈과 실천으로 전남광주의 도약을 이끈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다스코(주) 회장

|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졸업(2007), 조선대학교 대학원 MBA(2016), 조선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2022) |

책이 빼곡하게 들어선 다스코 집무실에서 만난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다스코 주식회사 회장)은 지역의 역사부터 기업가정신, 인재 양성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조선대학교 동문인 그는 전남광주가 맞이한 변화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상원 회장은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지금이야말로 전남광주가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원대한 꿈을 품고 끊임없이 도전해 온 한상원 회장을 만나보자.

Q1. 조선대학교 동문으로서 모교와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A. 저는 어려서부터 광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이 오랫동안 소외되고 낙후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지난 역사만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합니다. 최근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광주가 젊은 세대가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향에서 꿈과 희망을 품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지요.



Q4. 조선대학교 후배들이 세계를 무대로 성장  
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제가 후배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본과 신뢰,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입니다. 저는 초기에 우크라이나에 국내 사탕 포장지를 수출하는 사업을 했다가 공급업체의 품질 문제와 부도로 163만불 규모의 클레임을 혼자 떠안은 적이 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협의 끝에 50만 불로 조정된 금액을 2년에 걸쳐 모두 갚았고, 거래처로부터 'JB 박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당시 거래처 대표였던 페트로 포로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인연도 이어졌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동차 판매를 비롯해 더 큰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피하면 그 순간은 편할 수 있지만 더 큰 기회는 얻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약속한 일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후배들도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기보다 정직하게 마주하고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쌓은 신뢰가 결국 더 큰 기회를 만들고, 세계로 나아가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Q5.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은 조선대학교에  
축하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조선대학교의 개교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의 조선대학교는 지역민의 헌신으로 시작된 숭고한 설립정신과 수많은 구성원, 동문의 열정이 80년 동안 이어져 이룬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교가 지난 역사를 자랑스럽게 계승하면서도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의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개척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대학과 함께 무엇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후배들이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출처: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OKTA) 제공

"어디에서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선대학교 동문이라는 뿌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깊습니다. 후배들도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기보다 정직하게 마주하고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쌓은 신뢰가 결국 더 큰 기회를 만들고, 세계로 나아가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Q2. 전남광주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기업이 들어오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역에서 성장한 우리 아들딸들이 먹고살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일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남광주는 지식경제 시대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산업은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인재가 있고, 산업에 활용할 부지가 있으며, 에너지 활용 효율도 높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남광주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꿈은 행동할 때 현실이 됩니다. 지금의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 전남광주가 다시 한번 크게 융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3. 지역 대학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A.** 기업과 대학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학은 미래 산업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길러내야 합니다. AI나 반도체, 모빌리티 산업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기술을 운용하는 인력부터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석·박사급 연구인력까지 다양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대학은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과 연구를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도 대학이 배출한 인재가 지역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과 기업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평소 학생과 청년들에게 강조하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A.** 제가 운영하는 흥인학원의 교육 방향은 '원대한 꿈', '수불석권(手不釋卷)', '인류공

영' 세 가지입니다. '원대한 꿈'은 자신의 가능성을 작게 한정하지 말고 큰 뜻을 품으라는 의미입니다. 목표를 크게 세우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불석권'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문고전과 역사를 가까이하며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책은 많이 읽는 것보다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처럼 뜻을 꼼꼼히 헤아리고,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며 읽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직접 옮겨 적고 자주 들여다보며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류공영'은 배움을 통해 키운 능력을 개인의 성공에만 사용하지 말고 사회와 인류를 위해 쓰라는 뜻입니다. 원대한 꿈을 품고 꾸준히 배운 뒤에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성취를 더 큰 공동체를 위해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Q5. 그렇다면 어떤 책을 추천하시나요?**

**A.** 먼저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추천합니다. 제목 그대로 독서를 통해 리더가 되라는 뜻으로, 인문고전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전쟁터에서 『일리아스』를 늘 곁에 두고 읽었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데 중요합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문제적 중국사』도 권하고 싶습니다. 원·명·청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으로, 중국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경영의 신』 시리즈도 읽어보면 좋습니다. 외국에서만 배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회장처럼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훌륭한 기업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Q6. 미래 인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유능한 인재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업을 경영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역경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때 답이 없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겨울철 유엔군 묘지를 푸르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잔디 대신 보리를 옮겨 심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소도, 배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었지만 해외에서 자금을 마련하고 선박 수주를 받아 결국 세계적인 조선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문제해결 능력이고 기업가정신입니다. 교육도 정해진 답을 고르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역경이 닥쳤을 때 해결책을 찾아 실행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Q7. 개교 80주년을 맞은 조선대학교와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조선대학교는 지난 80년간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며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후배 여러분도 원대한 꿈을 품고 책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과 국가, 더 나아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실패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행동하십시오. 꿈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조선대학교의 힘찬 도약과 새로운 100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민법책이 늘 곁에 있습니다”

배움으로 인생 2막을 연다

78세 만학도,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1949년생, 올해 78세인 송형중 동문은

70대에 조선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 지난 2월,

4년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았다.

어린 시절 그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960년대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생활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나주에서 젓소 농장을 운영하며

생업에 매진해 온 그는,

70대가 되어서야 그 꿈을 다시 이어갔다.

학문을 닦고, 손주辈 학우들과 어울리며,

또 새로운 전공에 도전하기까지.

그가 말하는 ‘배움의 의미’를 직접 들어봤다.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나주 왕곡면 갈멜농장에서 젓소 100여 두, 논밭 2만여 평을 경영하고 있는 1949년생 78세 송형중입니다. 이번 2026년 2월에 조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Q2. 70대에 대학을, 그것도 조선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평소에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1960년대에 가뭄이 심하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뜻을 실현하고 싶어 입학하게 됐습니다. 조선대학교 법과대학은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곳이고, 지역에서 법조인을 많이 배출한 학교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법 상식을 잘 전하고, 생활 속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윤희유’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 조선대 법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Q3. 젓소농장을 운영하시며 학업을 병행하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A.**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도 낯설었고, 스마트폰 출석도 할 줄 몰라 며느리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생활을 극복해 온 의지가 제 삶에 녹아 있었고,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배우며 익혀갈 수 있었고, 결국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Q4. 대부분이 손주辈인 학우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세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소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제가 먼저 어린 학우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이를 내세우기보다는 함께 배우는 학생이라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먼저 다가가 서로 도우며 지내자고 했고, 점심도 함께 먹고 커피도 사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코로나로 격리된 학생이 있었을 때는 장을 봐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소통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편하게 대해줘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도중에도 지나가던 학생이 먼저 인사를 선뜻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Q5. 조선대학교에서의 수업이나 교수님, 동기들과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입니까?**

**A.** 코로나 시기에 입학해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첫 대면 수업을 갔던 날이 기억에 납니다. 첫 시간이 영어 수업이었는데, 원어민 교수님이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셔서 잠시 당황했습니다. 준비를 못 했던 터라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때 대학이라는 곳이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곳이구나 느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자, 또 추억입니다.

**Q6. 이번 학업 도전이 선생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습니까?**

**A.** 삶을 살아가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Q7. 이번에 취득한 법학과 학위를 향후 어떻게 활용하실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A.**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법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관공서에서 “안 됩니다” 하면 그냥 돌아섰는데, 공부를 하고 나니 왜 안 되는지 절차가 보이더군요. 교수님께서 민법책은 가까이 두고 자주 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읽고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면서 소소한 법적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Q8. 졸업 후 타 대학 작업치료학과 진학을 계획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A.** 살다 보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노력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건강이더군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막연히 바라보고만 있기보다, 제 몸을 관리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작업치료학과로 편입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면서 제 삶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Q9. 배움을 망설이고 있는 중·장년층 또는 조선대학교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후배들도 즐기찬 도전 정신으로 자기 삶을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 조선대학교가 기억하는 그날의 사람들



조선대학교는 민주평화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 김동수·이철규·김학수·류재열 열사의 삶과 뜻을 오래도록 기억해 오고 있다. 이들이 살아간 시대와 마주한 현장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에 섰다. 해마다 이들의 추모제가 이어져 오는 가운데, 모교 역시 이들의 이름과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다.

김동수 열사(전자공학과 78학번)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에 맞서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숨졌다.

이철규 열사(전자공학과 82학번)는 1989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던 중 경찰의 검문 이후 행방불명됐다가 제4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학수 열사(산업공학과 85학번)는 1990년 5·18 10주년 집회에서 과도한 최루가스를 흡입해 쓰러진 뒤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류재열 열사(행정학과 96학번)는 1997년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남충련 개강투쟁 선포식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졌다.

이들은 개교 80주년을 맞아 조성된 ‘민주인권동산(CSU Humanity Rose Garden)’에서 다시 기억된다. 조선대학교는 캠퍼스 장미원에 ▲5·18 민주동산 ▲조선대학교 민주열사동산 ▲소녀동산을 지정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민주열사들의 신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못다 한 꿈을 오래도록 기리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각 동산에는 전남대학교 한태호 교수가 직접 육종한 장미가 식재된다. 5·18 민주동산에는 ‘광주5·18(Gwangju 5·18)’, 조선대학교 민주열사동산에는 ‘대동(Daedong)’이라는 이름의 장미가 각각 식재되며, 소녀동산에는 2019년 명명된 장미 ‘소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중 민주열사동산은 민주열사의 삶과 신념을 함께 기억하고,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공간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이 남긴 뜻과 대학의 민주화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 최근 이철영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장이 김학수 열사를 기리며 쓴 추모글 「너를 기억한다」를 소개한다.

## 너를 기억한다

화홍포는 너를 기억한다.  
네가 태어난 그곳은 세상에서 밀려난  
이들의 유배길이었고 세계로  
나가는 바닷길의 관문이었다.  
장보고, 윤선도. 송시열, 최익현이  
떠나간 길이였다.  
그들이 이별하며 포구에 눈물을  
떨구고 세차게 부딪히던 병장기들의  
소리가 멈추지 않던 곳이었다.  
학수 너는 전생애 장군이었을 거다.  
너는 화홍포를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  
세상과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20세기의 끝자락에서  
불우한 시대를 부둥켜안고 목 놓아  
울었다.

비파나무는 너를 기억한다.  
6월이면 완도 화흥국민학교 질푸른  
비파잎 사이로 살구처럼 익은  
비파열매를 따먹었지.  
선생님이 열매를 고루 나누어 주면  
동생 문숙이에게 니 몫을  
나눠주곤 했어.  
문숙이가 젓가락을 챙겨오지 않아  
울고 있을 때면 동생을 다독이며  
먼저 먹었지.  
사시사철 너는 화개리에서 화흥초등  
학교 통학길 통학단장을 했지.  
겨울이면 사장깨리 언덕을 넘어  
불어 오는 매서운 북서풍 작은  
몸뚱이들이 날아갈까 돌담 뒤에 숨어  
떨고 있을 때도 너는 장수처럼 몸을  
일으켜 “가자”하고 소리 쳤어.  
아이들은 너의 큰 등에 병아리처럼  
줄줄이 얼굴을 묻고 따라 나섰지.  
너는 천생이 장수였던 거야.

엄마는 기억한다.  
시위대열의 맨 앞에 서서 돌을  
던지던 너를, 경찰의 수배를 피해  
도망 다니고 날이면 날마다 최루탄  
냄새를 맡혀 오는 아들은 엄마의  
품을 떠나지 오래였다.  
친구들이 집에 오면 엄마는 “저 큰  
놈 좀 잡아와라”고 하소연 하셨다.  
“지가 세상을 어떻게 바꾼다고!”  
아무리 열리고 달래도 요지부동이  
었다. 무슨 귀신이 씌인 거지.

이철규 학생이 죽고는 진상규명  
한다고 1년이 넘도록 집에 잘 들어  
오지도 않았지. 병이 나고 5월 9일  
안철훈 내과 213호실에 입원하더니  
5.18 투쟁 간다고 병원에서도  
도망했어 조대 앞에서 하숙을  
쳤던 죄였다.  
방이라도 하나 더 늘여 하숙 친다고  
아들 밀어 내고 복도 구석에 방이라  
고 만들어 준 것이 한이 돼서  
그 큰 몸 하나 누이기도 힘든 곳에  
잠자리 만들어준 것이 가슴에  
대못이 돼서 엄마는 너만 생각하면  
술을 마셨다. 니 애비와 니 동생들  
이 그리 말려도 엄마의 찢겨진 가슴  
은 아물지 않았다.  
생때 같은 자식 보내고 맨 정신으로  
하늘을 올려다 볼 수가 없었다.

조선대학교는 너를 기억한다.  
너는 산 같은 몸과 역발산의 힘을  
가져서 고등학교 씨름 선수였고  
대학에 입학해서도 전국체전  
대표선수로 출전했지.  
그러나 중학교 시절 목도한 '80년의  
학살과 여전히 총칼을 앞세운

정권의 폭력 앞에 씨름선수만일  
수는 없었다.  
박철웅 독재와 싸우고 너는  
들배지기로 정의가 무너진 세상을  
뒤엎어야 했다.  
친구들은 너를 기억한다.  
불의한 세상에 파병되었던  
장수 람보야  
죽음을 앞에 두고도 병원 문턱을  
뛰어넘고 오로지 앞으로만 전진했던  
순수한 열정의 덩어리 이제 학수  
없으니 전국일용노조 조직은 어떻게  
꾸려가냐 했던 동지들의 눈물  
밥 몇그릇을 똑딱 비우게 했던 네  
어머니의 3년 묵은 김치는 우리는  
이제 어디서 먹느냐.  
아들의 흔적을 찾아 조대,  
도내기 시장을 돌며 흘렸던 어머니의  
눈물 역사와 정의 앞에 너를 복원  
시키기 위해 긴 세월 뛰어다니시다  
이제 스스로 투사가 되어 버리신  
네 아버지의 땀방울과 눈물은  
누가 닦아 드리느냐.

네가 두고 간 깃발은 36년을 넘어  
펼려지고 있다.  
노동현장의 동지들이 너를 가슴에  
품고 망치를 들어 네가 못다 한  
길을 넓히고, 화홍포의 파도가 네  
기개를 노래한다.  
사장깨 언덕의 바람이  
너의 숨결을 전한다.  
학수야.  
너는 패배하지 않는 영원한 장수,  
우리들의 가슴속에 영원불멸의  
동지로 함께 숨 쉬고 있다.

2026년, 이철영





# 조선대학교에서 웨딩사진 남기다

## 캠퍼스에서 결혼까지

© 사진 작가 양승화, 포토샵 이야기영

따뜻한 봄날, 조선대학교 캠퍼스에 한 ♡특별한 커플♡이 카메라와 함께 찾아왔다.  
조선대학교에서 만나 10년의 시간을 함께해 온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  
강의실에서의 첫 만남, 시험을 함께 준비하던 날들, 공과대학 벤치에 앉아 나눈 수많은 대화까지.  
두 사람의 시간은 캠퍼스 곳곳에 커커이 쌓여 있다.  
그리고 그 기억의 공간에서, 두 사람은 웨딩촬영이라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남기기로 했다.  
캠퍼스에서 시작된 사랑이 웨딩으로 이어지기까지. 그들의 10년을 따라가 보자.



### Q1. 두 분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천명훈:**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14학번으로 입학해 졸업한 천명훈입니다. 현재는 원자력 관련 설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가영:**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14학번 학사, 18학번 석사, 20학번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현재는 원자력 운영 회사에서 인간공학 분야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가영입니다.

### Q2. 원자력공학과 CC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천명훈:** 1학년 때 수학 교양 수업에서 여자친구가 앞자리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기말고사 이후 종강 파티를 함께하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첫인상은 '웃을 정말 잘 입는 친구'였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니 저에게 없는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느껴 연애로 이어졌습니다.

**박가영:** 1학년 때 농촌봉사활동을 갔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진짜 호탕했습니다. 이후 제가 먼저 호감을 표현하고 카톡을 주고 받다가 사귀게 됐습니다.

### Q3. 대학(원) 시절 조선대학교에서 연애를 이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또한, 추억의 스팟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천명훈:** 공부할 때나 힘들 때마다 공대 15층 벤치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Ri(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시험에 합격했을 때 여자친구가 진심으로 축하해 준 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박가영:** 제가 실험실 생활을 할 때, 학부 재학 중이던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놀다가 저를 보러 랩실에 자주 찾아오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공대 15층 벤치에 앉아서 서로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수다를 떨었던 시간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저희 후문 무진장떡볶이를 진짜 좋아했는데, 같이 떡볶이 먹은 추억도 많이 떠오릅니다.

### Q4. 만약 대학 시절로 하루만 돌아갈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천명훈:** 여자친구와 함께 석사 과정을 준비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학사까지만 졸업해서 여자친구가 석사, 박사를 준비할 때 공감을 많이 못 해줬고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함을 많이 느꼈어요.

**박가영:** 지금은 직장인이라 내일이 있고, 또 건강이 걱정되다 보니 술을 많이 못 마시고 있는데,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둘이 같이 조대후문에서 친구들 불러서 부어라마셔라 하고 싶습니다. ㅎㅎ 저희 둘 다 술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 Q5.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나 순간이 있나요?

**천명훈:** 연애 때부터 느꼈지만, 여자친구는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서로를 잘 이해해 주고, 여러 면에서 함께하고 싶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너무 예쁘고 웃도 잘 입고 제 스타일이고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박가영:** 처음에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대뜸 결혼하자고 해서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만남을 이어가며 가족과의 관계나 따뜻한 성격을 보며 신뢰가 생겼어요. 이전에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아침에 볼보보하며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했던 일화를 들으며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서 나도 따뜻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 Q6.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갔나요?

**천명훈&박가영:** 결혼을 결심하니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성격 차이를 극복하려고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하고는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20년을 따로 살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잘 맞을 수가 있겠어.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달라 각자의 토피바퀴 모양이 다르니까, 지금은 삐걱삐걱거리더라도 서로 양보해 가면서 잘 굴러서 살아보자!”라면서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 Q7. 웨딩촬영 장소로 모교를 선택하신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천명훈:** 캠퍼스에 대한 추억이 많아서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계절마다 꽃이 피는 아름다운 풍경과 축제의 즐거운 기억이 많이 남아서 학교에서 촬영하고 싶었습니다.

**박가영:** 형식적인 스튜디오 촬영보다 우리의 연애 추억이 담

긴 공간에서 사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열어보고, 촬영하는 이 순간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둘 다 광주가 아닌 대전에서 살아서, 야외에서 스냅 촬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제 더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결정했습니다.

#### Q8. 두 분의 연애 과정에서 조선대학교 캠퍼스가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천명훈:** 20대의 시작부터, 젊은 10년의 시간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꿈을 향해 함께 공부하고, 싸우고, 다시 화해하며 성장해 온 기억이 모두 담긴 공간입니다.

**박가영:** 매번 그런 상상을 하는데, 조선대학교가 없었다면 저희는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저희가 조선대학교에 오게 된 이유도 정말 각각의 우연이 따라줘서 오게 된 경우라서 정말 신기해요. 조선대학교는 저희에게 그저 모교가 아니라, 인연을 만들어준 매개체입니다!

#### Q9. 조선대학교에서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CC 커플이나, 앞으로 CC를 기대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천명훈:** 연애 초기 100일도 안 돼서 농담처럼 결혼하자고 말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현실이 되니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캠퍼스에서 함께 쌓은 추억이 많을수록 관계도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후배분들도 서로의 시간을 소중히 쌓아가면서,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도 마음껏 즐기세요! 힘들 때 즐거웠던 대학 시절을 떠올리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박가영:** 과 CC는 같은 분야를 공유하다 보니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함께 성장하는 느낌도 크고요. 겹지인이 많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도 매력적입니다. 생각보다 과CC 너무 좋아요. 함께 해요. ㅎㅎ 대부분 과CC는 헤어지면 민망해서 학교 못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헤어지면 생각하세요. 뭐 두고두고 남의 입에 오르내릴지언정 그것도 다 경험이잖아요! 그냥 시원하게 연애하고 살아요 우리!

# 휴머니티

HUMANITY  
BEYOND  
the FUTURE

## \*

# 혁신의

### 80th Anniversary

조선대학교 개교 80주년

# 미래

# 조선대학교

Since  
1946



## 조선대, 중국 항저우에 '글로벌 거점센터' 신설 이어 '세종학당' 2026년 신규 지정

한국어 교육·문화교류 기반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



당'이 지난 6월 29일, 2026년 신규 세종학당으로 지정됐다.

항저우공수구공대미래기술연구원은 저장공업대학교와 항저우시 공수구 인민정부가 공동 설립한 전략적 고수준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이다. 조선대학교는 연구원이 보유한 최신식 강의실과 문화체험실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도모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항저우 세종학당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정규 운영에 돌입한다. 현지 대학생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조선대학교가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 글로벌 거점센터를 신설한 데 이어 '2026년 신규 세종학당 지정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중국 지역 글로벌 교육·교류 기반을 확대했다.

항저우시는 알리바바 등 글로벌 IT 기업이 자리한 디지털 경제와 AI 혁신의 중심지로, 청년 인재 유입이 활발한 도시다. 최근 K-POP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확산으로 대학생 및 직장인들의 한국어 학습 수요가 높아지면서 공신력 있는 한국어 교육 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지난 4월 현지 대학과 기업 네트워크를 보유한 절강아세안산업기술연구원을 '조선대학교 글로벌 거점센터 (중국 항저우)'로 지정했다. 센터는 한국어 교육과 대학 진학, 단기연수,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의 심사를 거쳐 항저우공수구공대미래기술연구원과 공동 신청한 '항저우 세종학

'세종한국어' 기반 정규 언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한식·태권도·K-POP·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매월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학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 대표 브랜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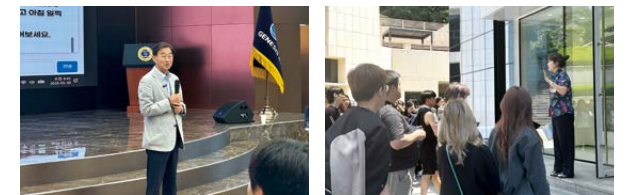
## 조선대 글로벌학부, BBQ 치킨대학서 K-푸드 산업 현장 체험

K-프랜차이즈 산업 이해 및 글로벌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조선대학교 글로벌학부 학생들이 국내 대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인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의 치킨대학을 방문해 K-푸드 산업 현장을 체험하며 글로벌 외식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선대학교 글로벌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글로벌학부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5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BBQ 치킨대학에서 기업탐방과 치킨캠프에 참여하며 K-푸드 산업과 프랜차이즈 운영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다. 학생들은 프랜차이즈 운영 구조와 브랜드 마케팅, 해외 진출 사례를 살펴보고 BBQ 대표 메뉴를 직접 조리하며 K-푸드 산

업 전반을 체험했다. 이를 통해 제품 개발과 품질·위생관리, 고객 서비스 등 외식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들이 팀을 이뤄 교류하며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관광경영·글로벌비즈니스·국제통상·K-컬처 등 전공과 연계한 진로와 취업 분야를 탐색하며 산업 현장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





## 몽골 예비 유학생 대상 '2026 CSU Summer School' 성료

217명의 몽골 학생 참가... 한국어·문화체험 통해 한국 유학 이해 높여



몽골 예비 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 '2026 CSU Summer School'이 7월 2일부터 12일까지 뜨거운 관심 속에서 성료했다.

이번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한국관광공사 전남광주시사 및 광주광역시관광공사의 공동 지원을 받았으며, 예비 유학생들이 전남광주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관광 자원을 둘러보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몽골 다르항-울주와 울란바토르 지역 중·고등

학생 217명과 인솔교사 17명이 참가해 ▲한국어 수업 ▲캠퍼스 투어 ▲웰에이징 특강 ▲K-문화 체험 ▲위터파크 체험 ▲여수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조선대학교의 교육환경과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참가 학생들은 조선대학교 재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한국 대학 진학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 열린 수료식에서는 수료증을 수여받으며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 조선대, 세계 6개국 수련생과 '2026 국제태권도아카데미' 성료

103명의 수련생, 태권도로 기량 겨루고 한국문화로 하나 되다

조선대학교는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2026 조선대학교 국제태권도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미국 ▲멕시코 ▲체코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6개국의 외국인 태권도 수련생 103명이 참가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태권도 훈련에 참여해 기술을 연마하고 서로의 기량을 겨루었다. 아울러 조선대학교 총장배 국제태권도경연대회에 참여하고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

표 시범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태권도의 역동성과 매력을 경험했다. 또한 광주지역의 역사·문화 명소를 둘러보고 전통문화와 K-POP 등을 체험하며 한국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아카데미는 세계 각국의 수련생들이 태권도를 매개로 교류하며 우정을 쌓고, 조선대학교의 국제적 교육 역량과 태권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 조선대, 안데스 세계은행·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와 국제협력 본격화

해조류 연구·산업화·인재양성 국제협력 강화

조선대학교가 해조류와 해양생물 자원을 기반으로 한 연구성과를 글로벌 사회에 공유하며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조선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는 세계은행 안데스 국가 대표단과 페루·칠레·에콰도르 정부 관계자, PROBLUE, KGGTF 관계자 등이 방문했다. 조선대는 해조류 기반 기능성 식품·화장품·바이오소재 개발과 AI 기반 데이터 구축 등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블루푸드 산업화와 해외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6월에는 세계적인 해양생물학·해양생태학 연구기관인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 연구진이 센터를 찾았다. 방문단은 해조류 기능성 소재와 해양헬스케어 제품, 기술이전 및 기업지원 성과를 살펴보고 전문실험실을 둘러보며 공동연구와 연구자 교류, 국제 교육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조선대는 해양생물 자원의 발굴부터 기능성 연구, 제품화와 기업지원까지 연결하는 연구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해양바이오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연구와 산업, 인재양성을 연결하는 글로벌 해양바이오 협력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 조선대 K-MOOC, 한·불 수교 140주년 '대사관 공식 프로젝트'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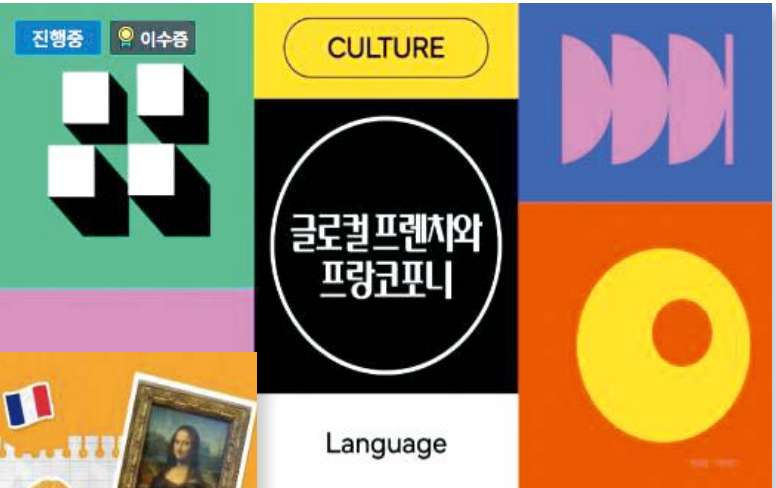
AI와 프랑스어를 결합한 디지털 교육으로 양국 문화교류 확대  
외교부·주한프랑스대사관 공식 인증 라벨 획득

자유전공학부·일반대학원 과학기술융합학과 양미애 교수의 교육 프로젝트가 외교부와 주한프랑스대사관이 주관하는 '2026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교육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공식 인증 라벨을 획득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글로벌 프렌치와 프랑코포니 ▲아이(AI) 함께 프렌치 해 불러 등 2개 강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활용해 프랑스어권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소개하고, AI 기술을 언어학습에 접목해 학습자의 글로벌 소통 역량을 높이는 에듀테크 모델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양 교수는 주한프랑스대사관으로부터 '한불 수교 140주년 공식 로고' 사용권을 부여받으며, 대사관의 공식 후원과 홍보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향후 프랑스 본국 및 전 세계 프랑스 문화원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에듀테크 교육 사례로 널리 소개될 예정이다.



양미애 교수



'글로벌 프렌치와 프랑코포니' 강좌 표지



'AI 함께 프렌치 해 불러!' 강좌 표지

출처: <https://www.kmooc.kr/>









제21기 국토순례\_제주·전남 240km(2026. 6. 23. ~ 7. 3.)



개교 80주년\_제주 4·3평화기념관 방문 및 80인의 한라산 오름(2026. 6. 26. ~ 6. 27.)





# 시의 언어로 삶을 이야기하다

문예창작학과 진은영 교수

제27회 현대시작품상 수상

어떤 기억은 오래 지나도 삶의 한편에 남아 있다. 진은영 교수는 쉽게 말할 수 없었던 마음과 사라진 이들의 흔적을 시의 언어로 불러내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해 간다.

진은영 교수는 시를 통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기억과 상처 곁에 머물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새롭게 감각하게 한다.

진은영 교수는 「자기소개」 외 9편으로 '제27회 현대시작품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한국문연이 발간하는 시 전문 문예지 월간 『현대시』 2026년 5월호에 게재됐다.

심사위원들은 진은영 교수의 시가 고통받는 존재를 멀리서 관찰하거나 성급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 곁에 오래 머물며 연약한 삶의 감각을 섬세하게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오래 견뎌온 슬픔을 낫선 감각과 언어로 전환함으로써 한국 현대시가 새로운 목소리로 시대와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2000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한 진은영 교수는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우리는 매일매일』, 『흠쳐가는 노래』,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등의 시집을 펴냈다. 또한 김달진문학상 젊은시인상,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 천상병시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자신만의 섬세하고 독창적인 시 세계를 구축해 왔다.



© 사진 한정선

“고통스럽다고 관계나 기억을 완전히 삭제한 채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건 밀동 없이 허공에 서 있는 나무처럼 불가능해요. 문학은 그 빈 데를 슬픈 노래, 아픈 노래로 촘촘히 채워줘요. 견고하지만 습기도 있고 숨도 쉴 수 있는 미술적 특수 소재 같은 게 시예요. (중략) 그런 점에서 시는 나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집이죠. 늘 시의 셋집을 떠돌면서 상처로부터 멀리 갔다 다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할 수 있었어요.”

“저는 다른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를 잘 못 하는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었어요.”

“저는 문학 속에서, 그리고 문학 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서 늘 세상에 대한 환멸을 이겨내는 힘을 얻으며 연명하는 사람입니다.”

※ 출처: 월간 『현대시』 2026년 5월호.

「[대답] 일곱 개의 질문으로 된 편지」 (진은영·양경언) 중

Jin Eun Jeongs

이번 수상작 가운데 「자기소개」에는 조선대학교의 아픈 기억도 담겨 있다. 작품 속 ‘청년 편집장’은 조선대학교 교지 편집장을 지내다 의문사한 이철규 학우다. 진은영 교수는 조선대학교에 임용된 뒤 이철규 선배의 죽음을 떠올리며 이 시를 썼다고 설명했다.

삶의 깊은 곳에 남은 기억과 미처 말하지 못한 마음을 시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진은영 교수. 이번 수상작 가운데 「자기소개」를 만나본다.

## 자기소개

나는 할머니와 살았고 어릴 적부터 늙어 있었어  
5월까지 헤어진 빨간 내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슬픔이 나의 명량한 이목구비를 깨끗이 닦아줬어요  
할머니의 술병들이 자라고 아버지의 빛도 자라고 부서진 시간들도 자라고 나도 자랐어요<sup>1)</sup>

키 큰 소녀가 되었어요  
어둠 속 커다란 침대에 혼자 누워서 사랑이 빗처럼 내 방 문틈으로 기어들기를 기다렸어요  
거짓말, 프루스트를 읽고 나서 하게 된 거짓말  
혼자 쓰는 방은 없었어요. 동생 셋이 나란히 잠들어 있는 구들 위에서  
가게 간판 불빛으로 환한 창문을 뚫어지게 노력하며  
밤이슬처럼 증발하기를 꿈꿨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배꽃나무가 문상객처럼 이어지는 언덕길을 설레며 걸었어요  
익사체로 발견된 청년 편집장의 얼굴이 돌바닥에 붙은 똑같은 사진들 속에서 따라왔어요  
우리는 웃었는데, 바람이 비질할 때마다 꽃들의 울음소리가 먼지처럼 일어났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따뜻하게 느꼈고 당신은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눈보라가 이불, 이불, 살아있는 이불들처럼 우리를 따라왔어요 하얗게 덮어줬어요  
잠시 세상에서 우리를 지워줬어요

혼자 남았어요  
“혼자일 땐 늘 과음을 하고 과로를 하죠” 누군가 말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든다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 죽은 척 했어요

살아있는 척 했어요  
살아있는 척 했어요  
구석에서 말라가며 쉰 냄새를 풍기는 걸레처럼  
내 영혼 속에 죽은 친구들과 함께, 내가 남아 있었어요

그때 노래가, 절망의 맨홀 뚜껑을 열고  
아래로, 배관공처럼 내려왔어요.  
함께 내려온 빛의 사다리를 따라 무의미의 날벌레들이 잠시 흩어졌어요  
알 수 없는 이야기의 물방울들이 겨울날의 미친 분수대처럼 구멍에서 일제히 솟아올랐어요

1) 클라리시 리스펙토르의 단편 「사랑」 (『달갈과 닭』, 배수아 옮김, 봄날의책, 2019)에 나오는 한 문장을 변주함.



에세이  
부문

[강의기반 나만의 학습성공 경험]

# 언어 너머를 듣다

국어국문학부 김현문정

KIM HYEON MUN JEONG

2025학년도 2학기,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에서 중국인 교환 학생 멘티를 만났다. 멘티는 TOPIK 문제집을 풀 때는 막힘이 없었다. 문법 항목을 짚어내는 정확도도 높았고, 문제를 푸는 속도도 빨랐다. 그런데 실제로 대화를 나눌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있는데 적절한 어휘를 고르지 못해 머뭇거렸고, 문장을 끝까지 자연스럽게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사람인데, 시험지 위의 한국어와 입 밖으로 나온 한국어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 그 모습을 보며 시험 성적과 실제 의사소통 능력 사이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간극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인식했다. 이 질문이 나를 다음 학기로 이끌었다.

질문에 대한 첫 단서는 같은 시기에 수강하던 제2언어습득론에서 얻었다. 언어 전이와 중간언어 이론을 배우면서, 학습자의 모국어가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학습자가 만들어 내는 오류 역시 무의미한 실수가 아니라 분석할 가치가 있는 언어 현상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다만 이론만으로는 멘티의 모습이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멘티의 모국어와 한국어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다른지 더 알고 싶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신청한 강의가 대조언어학이었다.

수업에서는 한국어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짚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깊이 남은 것은 일본인 학습자의 발화 오류를 분석한 과제였다. 교수님은 이 과제가 오류를 정확히 분석하는 일과 더불어, 외국인 학습자의 발화 자체에 익숙해지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오류를 짚어내는 것만큼이나 다양한 발음과 억양에 직접 귀를 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이

허브는 다양한 모국어권 학습자의 실제 발화를 모아 둔 공공데이터로, 그동안 텍스트로만 접했던 오류 유형을 직접 귀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학습자의 음성을 반복해서 들으며 발음 오류를 분석했다. 시작 전에는 같은 일본어권 학습자라면 오류 양상도 비슷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실제 자료를 들어 보니 예상은 빗나갔다. 어떤 학습자는 자음 발음에서 자주 걸렸고, 어떤 학습자는 종성이나 음운 현상에서 더 자주 흔들렸다. 같은 모국어를 쓴다고 해서 같은 오류를 만들지는 않았다. 모국어의 영향은 분명히 있지만, 그 위에 학습 환경과 학습 경험, 숙달도 같은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 멘티를 보며 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의 윤곽이 이 지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로 남고 싶지는 않다.  
학습자의 모국어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들이 부딪히는 어려움의 원인을 함께 짚어 갈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

점에서 잡히기 시작했다. 시험과 실제 대화의 차이는 단순히 연습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쳐 만들어 내는 복합적인 현상이었다.

이 수업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택한 방법은 단순했다.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이 드는 예시와 설명을 교재에 없는 부분까지 최대한 상세히 받아 적었다. 시험 기간에는 강의자료와 필기를 하나로 합친 단권화 노트를 만들면서 비교언어학, 대조분석, 오류분석, 언어유형론, 중간언어같은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스스로 다시 짜맞췄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제 체계 차이, 한국어와 영어의 부정의문문 응답 방식 차이 같은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정리했다. 중요한 개념은 예상 서술형 문제를 직접 만들어 답안을 미리 써 보았다. 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논리로 설명할지를 한 번 더 연습한 것이다.

이렇게 다져진 시각은 수업 밖으로도 이어졌다. 유튜브나 방송에서 외국인이 한국어로 말하는 장면을 보면, 더 이상 발음이나 어순이 틀렸다는 데서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이 오류는 어디서 왔을까, 어떤 언어적 배경이 영향을 줬을까, 내가 가르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오류의 원인을 짚어 보는 이 습관은 예비 한국어 교사로서의 시각을 조금씩 만들어 갔다. '가르친다면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그 질문은 수업 밖에서도 답을 찾을 기회로 이어졌다. 시험 기간마다 친구들에게 어려운 개념을 설명해 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내 지식도 한 번 더 정리되고 이해가 깊어졌다. 누군가 "아, 이제 이해됐다."는 반응을 보일 때 느끼는 보람은 성적표로는 다

설명되지 않았다. 한국어교육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한 건 처음엔 단순한 흥미였지만,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느낀 즐거움을 통해 이 길이 오래 붙잡고 갈 수 있는 진로라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앞으로의 목표는 한국어 교원이 되는 것이다. 다만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로 남고 싶지는 않다. 학습자의 모국어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들이 부딪히는 어려움의 원인을 함께 짚어 갈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한국어가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할 시험 과목이 아니라 즐겁게 다가가갈 수 있는 언어로 느껴지도록, 학습자의 시선에서 출발하는 나만의 교수법을 만들어 가고 싶다. 대조언어학은 그 출발점에서 내게 한 가지를 분명히 알려 주었다. 한국어를 안다는 것과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며, 그 차이를 메우는 일이 내가 평생 해 나가고 싶은 일이라는 것이다. 한 학기 동안 들었던 그 수많은 오류들은 이제 더 이상 틀린 발화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채워 가야 할 질문들로 남아 있다.

에세이  
부문



비에세이  
부분

■ [나의 '갓생' 대학생 생활 기반 학습성공 경험]

# 청춘은 무색이다

법학과 김재하

KIM JAE HA

Q. 학습성공스토리공모전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활동을 선택한 이유는 평소에 자주 더조아 시스템이라든지, 학교 안내 문자를 보는데 이제까지 있던 활동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운영 중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가하면서 알차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왔기 때문에 이 활동처럼 스스로가 과제물을 제작하는 것 또한 저에게 많은 경험과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창작물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스토리는?

A. 창작물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꿈을 뒤늦게 찾아내든, 대학을 늦게 오든, 시작이 어려운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있어도 스스로가 도전하고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대학생 생활의 청춘은 다채롭게 꾸며나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춘은 무색이라는 제목과 함께 무색으로 시작하기에 직접 원하는 많은 경험들로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겁을 먹던 저학년의 저와 같은 사람들이 직접 원하는 많은 활동들에 도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스토리 전개]

(1) 표지 - 청춘은 무색이다.

아무 색도 없던 과거의 대학 생활과 변화하게 된 간단한 계기 및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채워나간 활동들을 청춘의 6가지 색깔로 묘사해 보았습니다.

(2) 첫 번째 색 - 빨강

수면 습관을 만들어 하루의 루틴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방법과 꾸준한 운동을 시작하며 변화한 점을 사진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지정한 이유는 가장 힘들기도 하였고, 그만큼 지켜내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입니다.

(3) 두 번째 색 - 분홍

공기업 특강, 증권 세미나, 취업 동기부여 특강 등으로 진로 외에도 흥미가 있었던 여러 가지 주제의 강연을 들어보면서 마일리지치를 모으는 활동을 했습니다. 분홍색인 이유는 열정인 빨강과 섞여가는 느낌의 하양이 섞였다고 생각하여 선택하였습니다.

(4) 세 번째 색 -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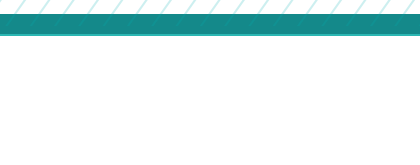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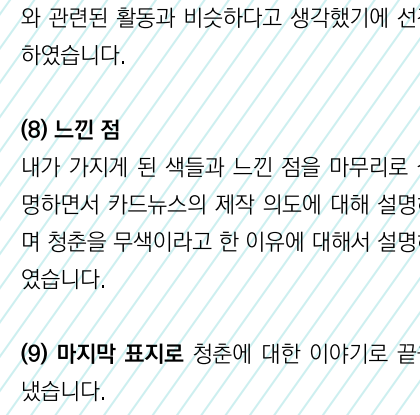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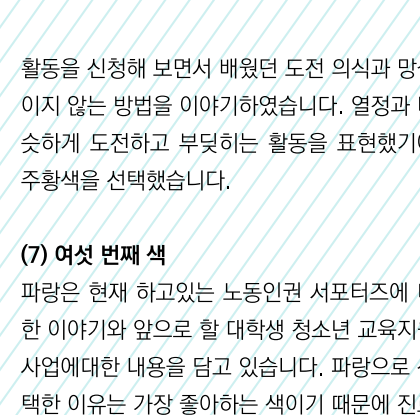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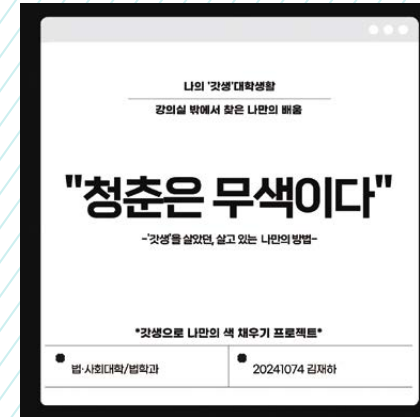
흥미가 있었던 분야인 투자동아리에 들어가, 관련 지식과 사람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사회성을 많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 봉사동아리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동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들을 경험하고 마찬가지로 사람과 교류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늘색인 이유는 동아리 활동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늘을 보는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5) 네 번째 색 - 노랑

학교에서 실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함께 활동한 경험입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활기찬 대학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노랑을 선택했습니다.

(6) 다섯 번째 색 - 주황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라는 법학과 관련 공모전에 참가해보고, 평소 관심이 있었던 해외 봉사



비에세이  
부분



## CSU 북(Book) 피크닉 개최

자연 속 열린 야외 도서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이 함께 자연 속에서 책을 즐기는 야외 독서문화 프로그램 '2026 CSU 북(Book) 피크닉'을 운영했다.

Anchor(구 RISE)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도서관 건물을 벗어나 야외에서 독서와 휴식,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조선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했다.

행사장은 빈백 소파와 돗자리, 파라솔, 텐트, 해먹 등을 배치하고 375권의 테마 도서를 비치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머물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야외도서관으로 조성됐다.

또한 북 홀더링과 비즈 책갈피 만들기 등 독서 연계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24개의 테마로 구성된 북 큐레이션과 다양한 현장 이벤트는 참여자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은 구성원과 지역민이 함께 책을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독서 행사로 자리매김 했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이 구성원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열린 독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앙도서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책과 사람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AI 기반 학습·연구 지원 서비스 운영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이용자의 편리한 도서관 이용과 효율적인 학습·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용자 친화형 서비스인 **툴루토(Tooluto) AI 챗봇**은 도서관 이용 방법과 자료 검색, 시설 안내 등에 실시간으로 응답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플라이북(Flybook) AI 도서 추천 서비스**는 대화형 기능을 통해 이용자의 관심사와 상황에 맞는 도서를 제안한다. 추천 도서의 핵심 내용과 상세 정보, 이용자 후기뿐만 아니라 도서관 소장 여부와 위치 정보까지 제공해 실제 자료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연구 윤리를 지원하는 AI 기능도 운영한다.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Turnitin의 인공지능 글쓰기 감지 기능(AI Detection)**은 교원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파일을 업로드한 뒤 결과 보고서에서 AI 생성 가능성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논문과 과제 제출 전 AI 활용 여부를 점검하고 연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학술자료 탐색을 위한 AI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생성형 AI 학술논문 검색은 자연어 검색과 EBSCO 저널의 핵심 내용 요약 기능을 제공해 과제와 리포트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 **ProQuest Research Assistant**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자료 추천 및 요약 기능을 제공하며, **DBpia AI**는 국내 학술자료를 기반으로 한 요약과 질의응답 기능을 일정 이용량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AI 서비스는 학습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 도구인 만큼, 활용 과정에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출처를 확인하는 이용자의 주의도 필요하다. 중앙도서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6학년도 상반기  
중앙도서관 대출 베스트 자료 20

기간 : 2026. 3. 1. ~ 2026. 6. 30.

| 번호 | 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소년이 온다                   | 한강         | 창비             |
| 2  | 호모 데우스                   | 하라리, 유발    | 김영사            |
| 3  | 절창                       | 구병모        | 문학동네           |
| 4  | 훈모노                      | 성해나        | 창비             |
| 5  | 프로젝트 헤일메리                | 위어, 앤디     | RHK<br>알에이치코리아 |
| 6  | 1984                     | 오웰, 조지     | Arte(아르테)      |
| 7  |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 크리스티, 애거서  | 해문             |
| 8  | 모순                       | 양귀자        | 쓰다             |
| 9  | 이기적 유전자                  | 도킨스, 리처드   | 을유문화사          |
| 10 | 자유론                      | 밀, 존 스튜어트  | 현대지성           |
| 11 | 채식주의자                    | 한강         | 창비             |
| 12 | 데미안                      | 헤세, 헤르만    | 민음사            |
| 13 | 구의 증명                    | 최진영        | 은행나무           |
| 14 | 급류                       | 정대건        | 민음사            |
| 15 | 노르웨이의 숲 = Norwegian wood | 촌상춘수       | 문사미디어          |
| 16 | 햄릿                       | 셰익스피어, 윌리엄 | 민음사            |
| 17 |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 령목유의       | 리프             |
| 18 | 바깥은 여름                   | 김애란        | 문학동네           |
| 19 | 자몽살구클럽                   | 한로로        | 어센틱            |
| 20 | 장자 : 우주와 인생의 깊은 뜻        | 오강남        | 현암사            |

유물 연구부터 전시·교육·체험까지  
대학박물관 공공 역할 확대

조선대학교 박물관이 ‘2026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사업’에 처음 선정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대학 박물관 진흥지원사업’에도 2년 연속 선정되며 연구·교육·전시를 아우르는 문화플랫폼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했다.

박물관은 수장고에 보관된 미정리 매장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등록하고 학술자료와 보고서를 구축해 전시 및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설전 「박물관, 과거를 열다」를 기반으로 전시해설, 도슨트 아카데미, 체험 및 진로교육,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지역민과 청소년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한편 국립민속박물관이 주관하는 ‘2026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역 유치원 어린이 128명이 참여해, 전시 버스 관람과 사계절 교육, 소창 손수건 만들기, 갈돌·갈판 체험 등을 통해 전통 생활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경험했다.

조선대학교 박물관은 이번 사업들을 계기로 소장 유물의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열린 대학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교 80주년 기념

# 조선대학교를 그려 봄

시민과 함께한 캠퍼스 어반스케치



본관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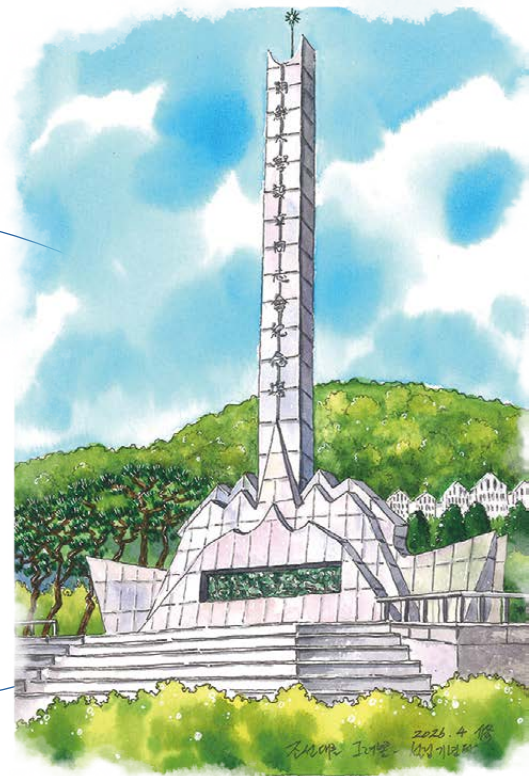
오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꿈의 길

조선대 본관

끝없이 이어지는 순백의 지성

국제관

세계를 향해 부는  
푸른 꿈의 바람



설립기념탑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세운  
오랜 배움의 탑

정문 조형물

서로의 마음을 잇는 포용의 문

## 조선대 캠퍼스, 그림이 되다

개교 80주년 기념 '어반스케치' 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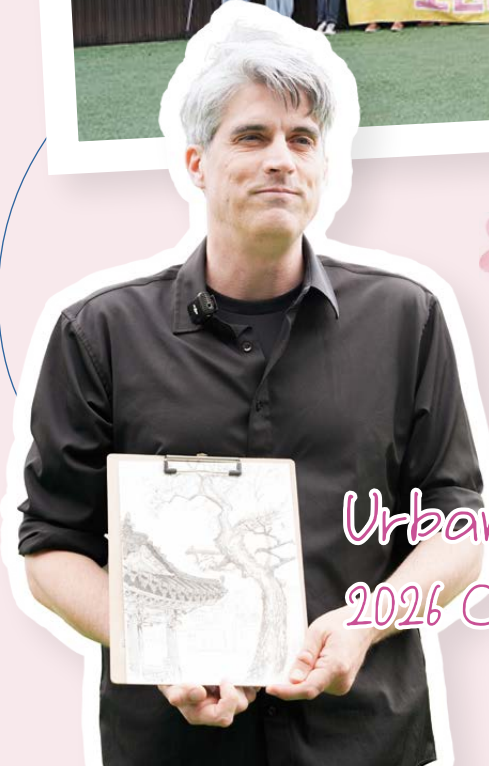
개교 80주년 기념 어반스케치 행사 '조선대를 그려 봄'이  
4월 12일 교내 명소 12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재학생과 지역민 등  
약 100명이 참여해  
조선대학교 캠퍼스를  
담아냈습니다.



시민의 뜻으로 세워진 조선대학교의 역사와 공간을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이 함께 예술로 기록하며 행사는  
뜻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대학의  
역사와 가치를 나누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이어가겠습니다.



Urban Sketch  
2026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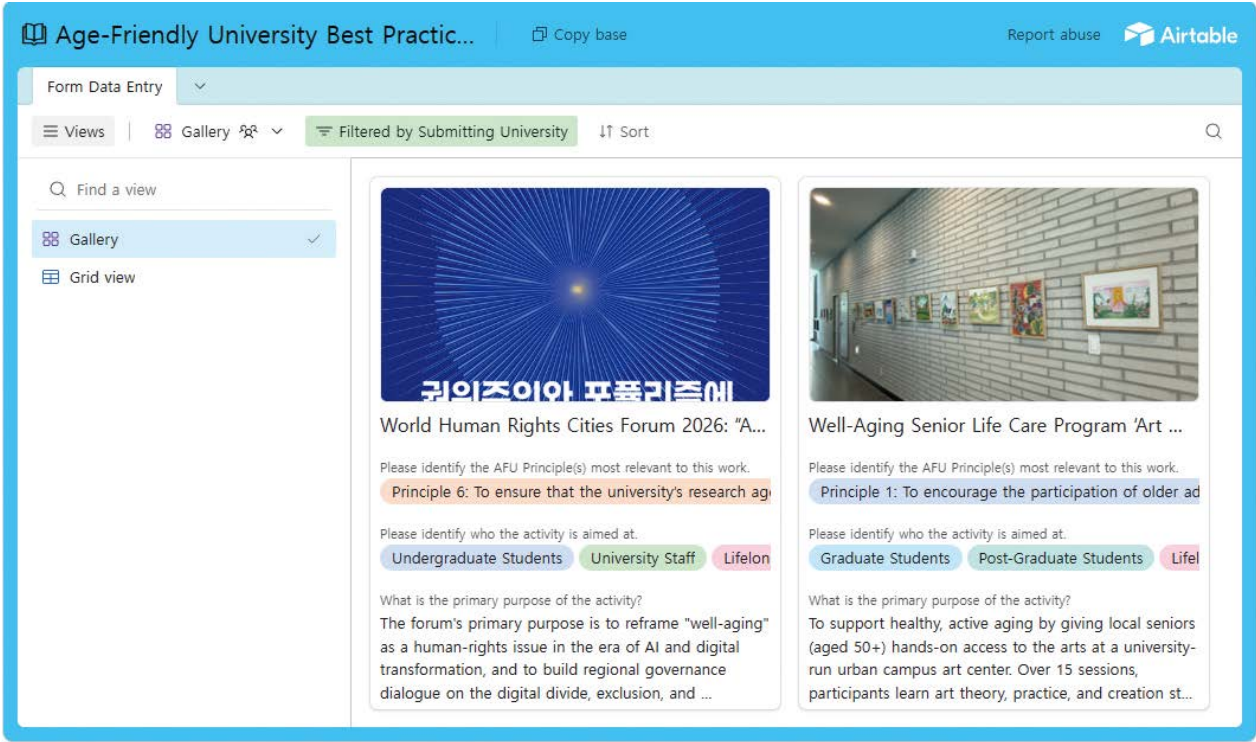


# 조선대 웰에이징, 인권과 예술로 확장되다

조선대 웰에이징 프로그램 2건, 국내 최초 ‘AFUGN 우수사례’ 등재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 공동 세션 · <미술산책> 시니어 예술 프로그램 운영

조선대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운영한 웰에이징 프로그램 2건이  
고령친화대학 글로벌 네트워크(AFUGN)의 ‘베스트 프랙티스’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됐다.  
국내 대학의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수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FUGN은 전 세계 110여 개 대학이 참여해 고령층의 평생학습과 사회 참여, 세대 간 학습, 건강·예술·문화 접근성  
등을 실천한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국제 협의체다.  
지난해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조선대학교는 가입 1년 만에 2건의 사례를 등재하며  
웰에이징 글로벌대학으로서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선정된 사례는 조선대학교 인권센터의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 조선대학교 특별회’와 조선대학교 미술관과 광주 동구청이  
공동으로 운영한 시니어 체험형 예술교육 <미술산책>이다.



## AI 시대, 존엄하게 나이 들 권리를 논하다

조선대학교 인권센터는 지난 5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  
린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글로벌대학추진단과 함께 「AI 시  
대, 웰에이징 인권과 디지털 포용」 세션을 운영했다.  
이번 세션에서는 고령층과 외국인 유학생, 디지털 취약계층이 AI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겪는 접근권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봤  
다. AI 돌봄, 키오스크와 비대면 서비스, 정보 접근성, 자기결정권  
등을 중심으로 기술 발전이 새로운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특히 조선대학교는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모든 시민이 존엄하게  
나이 들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웰에이징  
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행사 말미에는 「AI 시대, 전남광주형 디지  
털 포용 및 웰에이징 이행계획」을 낭독하며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이 기술 발전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또한 조선대학교 인권센터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학이 지역과 국제사회를 잇는 인권 거버넌스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인권센터는 포럼의 논의를 지역사회 실천으로 확장하기 위해 7월 29일 중앙도서관 커넥트홀에서 「기술 안에서 존엄하게 나이 드  
는 법, 웰에이징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후속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 생애 첫 전시로 이어진 시니어들의 ‘미술산책’

또 하나의 우수사례인 <미술산책>은  
조선대학교 미술관과 광주 동구청이  
‘CSU 도시캠퍼스 금계리 아트센터’  
를 기반으로 운영한 시니어 체험형  
예술 프로그램이다.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시  
니어 15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5회의 교육을 통해 미  
술 기초 이론과 실기, 창작, 작품 감  
상을 단계적으로 경험했다.

특히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시니어들이 직접 작품을 완성하고 생애 첫 전시까지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  
다. 완성된 작품은 지난 2월 금계리 아트센터에서 열린 성과전시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미술이 자신의 삶과 감정을 표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통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문화  
예술 자원을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시니어가 배움과 창작의 주제로 참여하는 도시캠퍼스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대, 학습중심 ‘AI 지능형 생태계’ 본격화

HYPER 2.0 선포... AI로 배우고, 질문하고, 해결하다

조선대학교가 대학 교육과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HYPER 2.0’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학생 수요 중심의 공간 혁신과 유연학사제도, 전공자유선택제 등 교육 혁신 기반을 구축한 ‘HYPER 1.0’에서 한 단계 나아가, AI를 활용해 학습의 질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지능형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대학은 이를 위해 구성원에게 AI 라이선스를 배포하고, 학생·교원·직원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한다. 학생들은 AI·SW 교양교육과 프롬프트·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AI 활용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교수진은 AI를 강의 설계와 교수법 개발의 협력 도구로 활용한다. 행정 분야에서도 AI 활용 사례를 발굴·공유해 대학 전반의 업무 혁신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러한 AI 교육 혁신은 현장 중심 수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대학교 Anchor(구 RISE) 사업단은 2026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와 연계해 323개 팀, 1,659명의 학생에게 생성형 AI 학습 도구 ‘GenAI’를 지원했다. 학생들은 자료조사와 문제 정의, 보고서 작성, 발표자료 제작 등 프로젝트 과정 전반에 AI를 활용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실무 역량을 키우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이처럼 교육과 행정 전반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윤리와 보안을 고려한 안전한 활용 기반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AI가 학습과 연구, 업무 혁신을 지원하는 대학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AI·디지털 기반 창업인재양성 사업’  
호남권 주관대학 선정

KAIST·포항공대·UNIST와 함께 전국 4개 대학 선정... 최대 6년간 총 55억 원 지원



연구책임자  
AI·SW학부(컴퓨터공학전공)  
전찬준 교수

조선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2026년도 AI·디지털 기반 창업인재양성 사업’에 호남권 유일의 주관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충청·호남·동북·동남 전국 4개 권역에서 권역별 1개 대학만 선정됐으며, 조선대는 KAIST(충청권), 포항공과대학교(동북권), UNIST(동남권)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AI·ICT 분야의 다학제 연구를 창업으로 연계해 대학원 연구자를 창업가형 석·박사급 인재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연구 주제 선정부터 시장 검증, 시제품 제작, 법인화, 투자 연계까지 창업 특화교육을 정규 학위과정에 내장하는 ‘연구·창업 일체형’ 교육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 대학

은 2026년 7월부터 최대 6년간(3+3년) 연 10억 원, 총 55억 원 이내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조선대는 AI·SW학부 전찬준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호남AI 거점 연합체’를 구축한다. 조선대를 AI 거점대학(AI Hub)으로 삼아 소리·항공우주·신재생에너지·전력에너지·의료AI 분야의 참여연구실을 구성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전력)와 GIST(의료AI)의 연구실과 협력해 지역 난제를 AX 창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가을학기부터는 석·박사 학위과정에 창업 특화 마이크로 디그리를 개설하고, 창업 준비 기간의 연구학기·인턴십 인정,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이 참여하는 멘토링, 기술실증 지원 등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융합 연구성과가 딥테크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조선대를 호남을 대표하는 AI 창업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 ‘2026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AI 분야 선정

5년간 총 81억 3,750만 원 지원... 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 본격화



사업단장  
AI·SW학부(컴퓨터공학전공)  
김판구 교수

조선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AI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항공우주 분야에 이은 연속 선정으로, 대학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81억 3,750만 원을 지원받아 580명 이상의 AI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특히 52개 참여기업 및 300여 개 협력기업과 채용 연계형 교

육을 운영하고, ▲Kakao Enterprise ▲KT ▲NHN ▲이스트소프트 ▲AI캠퍼스 등 주요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 또한 광주 AI 집적단지의 데이터센터 및 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 헬스케어·에너지·모빌리티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인턴십과 현장실습, 포트폴리오 제작, 면접 컨설팅, 잡매칭데이 등 맞춤형 취업 지원도 함께 운영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AI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조선대-KAI, 2026 항공우주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AI융합 과정’ 최종 선정

AI 기반 항공우주 실무인재 양성 본격화

조선대학교 항공우주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단(단장 김태규)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함께 교육부 ‘2026 항공우주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AI 융합 과정에 최종 선정됐다. 대학은 2027년 2월까지 5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며, KAI와 함께 항공우주 산업에 AI 기술을 융합시킨 ‘통합체계지원(Integrated Product Support, IPS)’을 주도할 AI 기반 융합 인재 양성을 본격화한다.

조선대학교는 AI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플랫폼 구축, 관련 분야 산업계 교원 확보를 담당하고, KAI를 비롯한 12개의 참여기업은 AI 인프라 공유, 현장실습 중심 몰입형 교육과정 공동운영 지원, AI 인재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양 기관은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중급/고급 마이크로



사업단장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김태규 교수

전공 신설 및 운영 ▲현장실습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AI 기반 IPS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노후 기숙사 ‘글로벌백학학사’로 새 단장

연간 유학생 1,000명 수용 기반 구축... 글로벌 정주 인프라 본격화



조선대학교가 글로벌 인재 5,000명 육성을 위한 정주 기반으로 지난 2월 ‘글로벌백학학사’를 새롭게 선보였다. 2002년 개관한 노후 기숙사를 전면 리모델링하고 명칭을 ‘글로벌백학학사’로 변경했다.

대학은 사생실을 정비하고 최신 가구를 도입하는 등 총 1,016명이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2026학년도에는 개별 샤워실 전환과 취사시설 확충, 글로벌 교류 라운지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연간 유학생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신입생 2,567명 대상 ‘학과로 찾아가는 진로심리검사’ 성료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 지원... 만족도 5점 만점에 4.48점 기록

조선대학교 원스톱학생상담센터가 신입생들의 안정적인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2026학년도 1학기 학과로 찾아가는 진로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에듀테크 기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성격과 적응 양상을 이해하고, 학업·대인관계·진로 영역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했다. 총 2,567명의 신입생이 참여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48점을 기록했다. 참여 학생들은 자기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학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 ‘다(多)가치 전공박람회 <운명전공>’ 성료

1,500여 명 학생 참여... 21개 융복합교육과정 전공 정보 한자리에



조선대학교가 재학생의 다전공 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026 다(多)가치 전공박람회 <운명전공>’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재학생 1,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43명의 학생 서포터즈와 11개 사업단이 함께 해 21개 융복합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전공 탐색과 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행사에서는 다전공(복수·부·융복합) 탐색과 이수 상담, 맞춤형 학업 설계 컨설팅을 운영했다. 퍼스널컬러 진단과 프로필 사진 촬영, 타로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 언어융합연구소, 수어·농문화 웹드라마 ‘들렸는데 보이네’ 공개

수어와 농문화 사회적 공감 확산 기대

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가 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 확산을 위해 웹드라마 ‘들렸는데 보이네’를 제작하고 유튜브 채널 ‘한국수어TV’를 통해 정식 공개했다.

청인 1명과 농인 7명이 출연한 ‘들렸는데 보이네’는 낯선 수어의 공간을 마주한 주인공이 수어를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담았다. 서로 다른 언어와 감각이 단절을 넘어 이해와 공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드라마 출연자인 이홍승씨는 “농 문화의 주변에 머물러 있던 자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뜻깊었다”며, “이번 작품을 통해 수어와 농문화가 보다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들렸는데 보이네’  
시사회 현장 살펴보기



‘들렸는데 보이네’  
EP.1 뒤집힌 세계 보러가기

## 조선대 약대 ‘CURED’×광주광역시약사회,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펼쳐

장미축제서 예방 홍보·봉사 약국 운영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마약예방활동단 ‘CURED(큐어드, 지도 교수 기성환)’와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조선대학교 장미축제에서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을 펼쳤다. 축제 방문객들은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마약근절서약서를 작성하며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뜻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광주광역시약사회는 약대 학생들과 함께 봉사 약국도 운영해 구급 의약품을 제공하고 응급처치법을 안내했다. 이번 활동은 마약 예방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 트랙 위에서 빛난 조선대 학생들의 모빌리티 기술

‘원더독스’ 국무총리배 A1 챌린지 3위·‘대자연’ 전국대회 GMTCK 특별상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자율주행과 자작자동차 분야에서 잇따라 전국대회 수상 소식을 전했다.

AI·SW학부 자율주행 연구팀 ‘원더독스’는 ‘2026 제8회 국무총리배 A1 챌린지’에서 E2E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로 3위에 올라 하반기 실차 레이스 진출권을 확보했다. 자작자동차 동아리 ‘대자연’은 ‘Baja Student Korea 2026’에서 직접 설계·제작한 차량으로 GMTCK 특별상을 수상했다. 특히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자연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협업체 차량 제작부터 2시간 내구레이스 완주까지 값진 성과를 이뤘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연구하는 실험실부터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동아리까지, 조선대 학생들의 도전은 트랙 위에서 거침없이 달려간다.





### 조선대

#### KBC광주방송·GC녹십자·코비코(주)와 ‘ICC 구축’ 위해 MOU 체결

▲웰에이징 산업 선도를 위한 상호 교류 및 연구 협력 ▲전 생애 건강증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협력 ▲글로벌 컬대학 추진을 위한 교육·학술·기술개발 협력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현 Anchor) 연계 협력과제 발굴 ▲취·창업 교육 및 일자리 창출 협력 등 함께 추진

#### 삼성중공업·영국선급과 ‘액화수소 운반선용 소재 안전성 검증’ JDP 체결

액화수소 환경에 적용 가능한 극저온용 소재의 기계적 성능과 파괴 안전성을 공동 평가

#### (주)승광기술과 ‘토목·건설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위해 MOU 체결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친선교류 ▲지역사회 사회 공헌사업 제공 등 상호 협력 ▲학생 현장 연수 및 현장 실습 협조 ▲지역 및 교육발전의 공동 노력 ▲기타 양 기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협력

####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IPS 인재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위해 MOU 체결

▲AI 기반 IPS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AI 기반 IPS 교육프로그램 위탁 교육 운영 ▲AI 기반 IPS 인턴십 프로그램 등 항공우주 분야 AI 기반 인재양성 협력

#### (재)순창발효관광재단과 ‘외국인 유학생 가족회사’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기업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유학생 취·창업 지원 및 협력 ▲지역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지역 정착 지원 등 협력

#### 전남교육청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위해 MOU 체결

전남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수준의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 개설·운영, 이에 필요한 사항 지원 등 협력

#### 솔가람고와 ‘지역 중심 미래 인재 양성’ 위해 MOU 체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진로 및 융합 선택과목 개발·운영 ▲지역 교육기관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미래개척 역량 함양을 위한 진로진학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역 중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특색 프로그램 발굴 등 협력

#### 한국도로교통공단(광주·전남지부)·법무법인 로연과 ‘유학생 법령 이해 교육’ 업무협약(MOU) 체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및 상담, 유학생 생활 및 거주 비자 관련 법령 교육 운영 등 협력

### 글로벌추진단

#### 빛고을50플러스센터와 ‘웰에이징 혁신 체계 활성화’ 위해 MOU 체결

▲웰에이징 특성화 분야 지역 확산 ▲바이오메디·에이지테크·라이프케어 분야 교류 및 연구 협력 ▲전 생애 건강증진 및 사회공헌 협력 ▲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생애 재설계 교육 운영 ▲글로벌컬대학 및 RISE(현 Anchor) 연계 협력과제 발굴 ▲취·창업 교육 및 일자리 창출 협력 등 추진

### 광기술공학과

#### 체코 과학원 물리학연구소 HiLASE 센터와 ‘고출력 레이저 및 광과학·공학 응용 분야 연구개발 협력’ 위해 MOU 체결

광과학, 원자·분자 물리, 반도체·광소자, 정밀 계측·검사 기술 분야에서 고출력 레이저 응용 연구개발 공동 추진

###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해양헬스케어유효성실증센터

#### 미래농경, 미래B&T와 ‘해양수산 자원 활용 산학협력’ 위해 MOU 체결

▲정부지원 산학공동연구사업 공동 수행 ▲김 양식장에 적용 가능한 영양물질 제품 개발 ▲해조류 등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한 농업용 제품 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협력 ▲기관 보유 실험·분석장비 공동 활용 ▲농수산 분야 학술 및 기술 정보 교류 ▲현장실증 및 사업화 과제 공동 발굴 등

### 의과대학

#### 아프리카 우간다 마케레레대와 ‘글로벌 의학 협력’ 위해 MOU 체결

▲공동 연구 사업 추진 ▲교수·학생 교류 확대 ▲학술 지식 공유 ▲보건 과학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협력

#### 일본 성마리아나 의과대학과 ‘의학교육·임상교육 협력 강화’ 위해 MOU 체결

▲의학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학생 및 교수 교류 프로그램 확대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추진 ▲임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 영암한국병원·완도대성병원·호남권역재활병원과 ‘임상실습 교육협력’ MOU 체결

조선대 의과대학 교육협력기관 지정, 임상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박물관

#### (주)라드피온과 ‘문화유산 공동연구 및 활용 추진’ 위해 MOU 체결

▲문화유산 학술분야 융복합 공동연구 추진 ▲문화유산 연구 분야 자문 및 지원 ▲문화유산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지역민을 위한 전시 및 문화 사업 추진 등 협력

### 평생교육원

####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광주평생교육이용권 활성화’ MOU 체결

▲광주평생교육이용권 사용 활성화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지원 등 협력

### 원스톱학생상담센터

#### 한국상담심리학회 광주전남분회와 ‘대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상담 네트워크 강화’ 위해 MOU 체결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개입 및 연계체계 구축 ▲상담 전문 인력 교육 및 슈퍼비전 강화 등 지역사회 상담사 간 정신건강 문제 대응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 기후위기대응 융합인재양성사업단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1.5°C포럼과 ‘지역사회 발전과 인력양성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업무협약(MOU) 체결

▲기후위기 대응 협력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응 융합 인재 양성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천 및 경제 활성화 등 추진



대학



**언어융합연구소**  
2026 인문사회 국민체감형 연구성과 공모전  
인문학분야 ‘우수상’  
  
최영주 언어융합연구소장

교원



**원자력공학과 나만균 교수**  
2026년 정부포상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기계공학과 조호현 교수**  
대한기계학회 열공학부문  
‘남현 학술상’



**문예창작학과 진은영 교수**  
제27회 ‘현대시작품상’



**기계공학과 안동규 교수**  
한국기계기공학회  
‘2026 KSMPE 기계가공 대상’



**무역학과 이제훈 교수**  
스승의날 인재양성 분야  
‘유공교원 교육부장관 표창’



**조윤성 취업학생처장  
[미술학부(서양화전공) 교수]**  
다중 운집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유공 ‘광주광역시장 표창’



**경제학과 박성훈 교수**  
2026 한국경제통상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경제학과 이혁진 교수**  
2026 한국유통경영학회  
‘최우수 논문상’  
+ 글로벌 학술출판사 Wiley ‘Top Viewed  
Article(상위 10% 최다 조회 논문)’ 선정

구성원



**약학대학 독성학실 이지현 박사후연구원**  
일본독성학회 ‘우수 발표상’  
  
**치주과 공태윤, 송혜진 전공의**  
대한치주과학회 제36회 춘계학술대회 임상 구연발표  
‘우수상’

이지현      공태윤      송혜진

| 소속          | 대상                                 | 대회·학술지·사업명                                                                            | 주요 성과                                  |
|-------------|------------------------------------|---------------------------------------------------------------------------------------|----------------------------------------|
| 경제학과        | 전주열 학생                             | KCI 등재지 「유통경영학회지」                                                                     | 논문 게재                                  |
|             | 송민수 학생                             | KCI 등재지 「유통경영학회지」                                                                     | 논문 게재                                  |
|             | 박한중 학생                             | KCI 등재지 「문화산업연구」                                                                      | 논문 게재                                  |
| 광기술공학과      | 이서윤 석사과정생                          | 유럽정밀공학·나노기술학회<br>제26회 국제학술대회                                                          | 포스터 부문 3위                              |
| 무역학과        | 정현진·배승묵·김동희 학생                     | (사)한국관세학회<br>2026년 춘계학술발표대회<br>대학(원)생 논문발표 경진대회                                       | 최우수상                                   |
|             | 정수현·나유경 학생                         |                                                                                       | 장려상                                    |
| 소방재난관리학과    | 박예성·강민채 학생                         | 2026년 KFI 소방인재 장학생                                                                    | 장학생 선정                                 |
| 신소재공학과      | 김윤하 석사과정생                          | 2026년도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br>춘계정기총회 및<br>제64회 학술발표대회                                         | 우수발표상                                  |
| 의과대학        | 문용균 학생                             | 상위 25% 이내 'Q1' 등급 SCIE(과학기술<br>술논문 인용색인) 국제학술지<br>「Journal of Clinical Medicine(JCM)」 | 제1저자 논문 게재                             |
|             | 홍재영 학생                             | 상위 25% 이내 'Q1' 등급 SCIE(과<br>학기술논문 인용색인) 국제학술지<br>「Scientific Reports」                 | 제1저자 논문 게재                             |
|             | 이선우 학생                             | 상위 25% 이내 'Q1' 등급 SCIE(과<br>학기술논문 인용색인) 국제학술지<br>「Medicina」                           | 제1저자 논문 게재                             |
|             | 신우진 학생                             | 상위 25% 이내 'Q1' 등급 SCIE(과학기<br>술논문 인용색인) 국제학술지<br>「Journal of ClinicalMedicine(JCM)」   | 제1저자 논문 게재                             |
| 의예과·약학과     | 의예과 박성찬·김정민·<br>이동현, 약학과 김시운<br>학생 | 2026 대한고관절학회<br>국제학술대회                                                                | 최우수 구연상<br>(Best Podium Award)         |
| 전산통계학과(대학원) | 오토공바야르 우진<br>박사과정생                 | APARM 2026                                                                            | 우수학술논문발표상(Best<br>Student Paper Award) |
| 정치외교학과      | 정승준 학생                             |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br>교육비전위원회                                                               | 청년 공동대표 위촉                             |

64 CSU Magazine

2026 상반기 | Vol.268 65



| 소속   | 대상                 | 대회·학술지·사업명            | 주요 성과                   |
|------|--------------------|-----------------------|-------------------------|
| 체육학과 | 고은정 학생             | 제55회 전국종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 여자대학부 높이뛰기 금메달          |
|      | 송해빈 학생             |                       | 여자대학부 높이뛰기 은메달          |
|      | 박강빈 학생             |                       | 여자대학부 멀리뛰기 은메달          |
|      | 신은상 학생             |                       | 남자대학부 멀리뛰기 은메달          |
|      | 오재혁 학생             |                       | 남자대학부 해머던지기 동메달         |
|      | 이동현·박현욱·박강빈·송해빈 학생 |                       | 남녀혼성 1600m 릴레이 동메달      |
| 체육학과 | 신은상 학생             | 제81회 전국대학육상선수권대회      | 남자대학부 멀리뛰기 금메달          |
|      | 양창식·이동현·김환·기은결 학생  |                       | 4×100mR 금메달             |
|      | 박강빈 학생             |                       | 여자대학부 멀리뛰기 금메달          |
|      | 고은정 학생             |                       | 여자대학부 높이뛰기 금메달          |
|      | 오재혁 학생             |                       | 남자대학부 해머던지기 은메달         |
|      | 송해빈 학생             |                       | 여자대학부 멀리뛰기 은메달          |
|      | 이동현·박강빈·김환·고은정 학생  |                       | 남녀혼성 4×400mR(MIXED) 은메달 |
|      | 박현욱 학생             |                       | 남자대학부 800m 동메달          |
| 체육학과 | 고은정 학생             | 제5회 전국대학육상경기대회        | 여자대학부 높이뛰기 금메달          |
|      | 윤준호 학생             |                       | 남자대학부 높이뛰기 금메달          |
|      | 신은상 학생             |                       | 남자대학부 멀리뛰기 은메달          |
|      | 양창식·이동현·김환·기은결 학생  |                       | 남자대학부 4×100m 계주 은메달     |
| 체육학과 | 윤준호 학생             | 백제왕도 익산 2026 전국육상경기대회 | 남자대학부 높이뛰기 금메달 (대회신기록)  |
|      | 구현욱 학생             |                       | 남자대학부 세단뛰기 금메달 (대회신기록)  |
|      | 고은정 학생             |                       | 여자대학부 높이뛰기 금메달 (대회타이기록) |
|      | 기승훈 학생             |                       | 남자대학부 멀리뛰기 금메달          |
|      | 신은상 학생             |                       | 남자대학부 멀리뛰기 은메달          |
|      |                    |                       |                         |

| 소속                                   | 대상                                   | 대회·학술지·사업명                                                  | 주요 성과               |
|--------------------------------------|--------------------------------------|-------------------------------------------------------------|---------------------|
| 체육학과                                 | 양창식·이동현·김환·기은결 학생                    | 백제왕도 익산 2026 전국육상경기대회                                       | 남자대학부 4×100m 계주 은메달 |
| 체육학과                                 | 김이현·이태인 학생                           | 2026년 제2회 청년 창업 아이디어 콘테스트(재일본관서한인회 주최)                      | 우수상                 |
| 치의학과                                 | 김희정 학생                               | 국제학술지 「Journal of Drug Delivery Science and Technology」 2월호 | 제1저자 논문 게재          |
| AI·SW학부                              | 김한솔(제1저자)·배준호·박동혁 학부생, 김여진·이지혁 석사과정생 | 'IEEE DCASE 2026 챌린지' 도메인 무관 증분 학습 기반 오디오 분류 부문             | 팀 랭킹 세계 2위          |
| 팀 원더독스 (WONDER DOGS)                 | 팀 원더독스                               | 2026 제8회 국무총리배 A1 챌린지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상 (3위)  |
| 동아리 대학생 자동차 연구회(대자연)                 | 대자연                                  | Baja Student Korea 2026                                     | GMTCK 특별상           |
| 지능형로봇 혁신융합 대학사업단                     | BITE 팀(이수혁·박하준·박준호·황진주 학생)           |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 제어로봇시스템학회회장상 (3위)   |
| 교양프랑스어와 AI 교양 교과목 수강생들               | 국어국문학부 채지우·김현서 학생 팀                  | 주한 프랑스대사관 Frankomedia 2026 공모전                              | 선정                  |
|                                      | 생명화학공학과 김정권·시각디자인학과 이유민 학생 팀         |                                                             | 선정                  |
| 산업공학과                                | 강하현 박사과정생, 김도희·오진성·조성빈 학부생           | 2026년도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심화과정                               | 선정                  |
| 전자공학과                                | 임소미 박사과정생, 설예은·손창휘 학부생               | 2026년도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심화과정                               | 선정                  |
| 첨단에너지공학과                             | 노선진 석사과정생, 임진희·김리아·좌명한 학부생           | 2026년도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심화과정                               | 선정                  |
| 국어국문학과                               | 윤지호 졸업생                              | 2026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 최종 합격               |
| 경제학과                                 | 오유성 졸업생                              | 2026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 최종 합격               |
| 탄소중립을 위한 고온·저온 열펌프 중견기업 특화 고급인력양성사업단 | 전창의 석사                               | 대한기계학회 열공학부문 학술대회                                           | 우수학위논문상             |
|                                      | 김혜민 박사과정생                            |                                                             | 우수논문상               |



## 단순히 피로와 스트레스 탓일까?

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조선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성중 교수

### 가벼운 장 트러블로 오인하기 쉬운 초기 증상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얼마 전 내원한 40대 남성 환자는 한달 전부터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었고, 변에 피가 조금씩 묻어 나왔지만, 잦은 야근 탓에 가벼운 장 트러블이나 피로 누적으로 여겼다고 했다. 시중의 약으로 버티다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지만,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이미 상당히 진행된 대장암이 확인되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바쁘다는 핑계로 장 건강 확인을 미뤘은 것을 크게 후회했다. 이런 환자를 볼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초기 증상이 가벼워 보이기 때문에 간과되기 쉽고, 그 사이 병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이다.

###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대장 건강

과거에는 대장암을 주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여겼다. 하지만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이 질환은 매년 인구 10만 명당 약 17~18명 수준의 사망률을 보이며 폐암, 간암과 함께 국내 주요 암 사망 원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데이터를 보면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대장 점막을 손상시키는 복합적 위험 요인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공육이나 붉은 육류를 자주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환경에 불균형이 생긴다. 이때 육류 소화를 위해 과다 분비되는 담즙산이 장내 세균에 의해 '2차 담즙산'으로 변환되어 발암을 촉진하는 물질로 작용한다. 이 과정이 장 점막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여기에 현대인의 고질적 문제인 비만,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이 더해지면 위험은 한층 가중된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세한 배변 습관 변화가 먼저 나타나기도 하지만, 종양이 진행되면서 출혈이 늘거나 장을 좁히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체중 감소나 뚜렷한 혈변 같은 이상 신호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병세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다.

### 장을 보존하는 내시경 치료와 맞춤형 최소 침습 수술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대장암의 치료법은 세분화된다. 암으로 발전하기 전인 용종 단계라면 대장내시경 중 올라미 등을 이용해 절제하는 용종절제술이나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통해 비교적 간단히 병변을 제거할 수 있다. 만약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낮은 점막, 또는 일부 점막하층에 국한된 조기 대장암이라면 '내시경 점막하박리술'이 주로 시행된다. 병변 아래에 용액을 주입해 부풀린 뒤, 미세 전기칼로 종양만 얇게 포를 뜨듯 정교하게 도려내는 시술이다. 장의 원래 기능을 보존하므로 삶의 질을 유지하고 일상 복귀도 빠르다. 그러나 암이 점막하층 깊숙이 침범했거나 주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된다면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 시에는 주로 복부에 1~2cm의 작은 구멍만 내는 복강경 수술이 시행되는데, 이는 기존 개복 수술보다 통증과 흉터를 줄이고 회복을 앞당기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수술 공간이 매우 협소한 직장암의 경우, 3차원 입체 영상과 자유롭게 움직이는 관절을 이용하는 로봇수술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 조기 내시경 검사, 대장암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진단 시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이지만, 발생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어 부지런히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평소 식단에서 육류 비율을 줄이고, 발암 물질 배출을 돕는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법은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다. 대장암은 정상 점막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용종이 되고, 이것이 수년에 걸쳐 암으로 악화되는 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검사를 통해 용종을 조기에 찾아 제거하면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50세 이후부터 정기적인 검사가 권장되지만, 최근에는 발병 연령이 낮아지며 45세부터 검사를 권고하는 흐름도 확대되고 있다. 검사 간격은 개인의 위험도에 따라 5~10년으로 조정된다. 다만 가족력이 있거나 배변 습관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소화기내과 김성중 교수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조선대학교병원 제26대 병원장 외과 최남규 의학박사 취임

최남규 병원장 취임... 의료 환경 변화 속 책임경영 선언

제26대 집행부 구성 완료... 본격 업무 돌입



조선대학교병원 제26대 병원장에 외과 최남규 교수가 3월 1일 취임했다.

신임 최남규 병원장은 외과 전문의로 조선대병원에서 부원장, 진료부장, 장기이식센터장, 외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신임 최남규 병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성원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높여 강한 추진력과 실행력으로 병원을 이끌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선대병원 진료부장, 교육연구부장 등을 역임한 정형외과 김동휘 교수가 부원장에 임명되어 최남규 병원

장과 함께 공식 업무 시작을 알렸다.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의생명연구원장 안과 고재웅 교수 ▲기획조정실장 - 신장내과 신병철 교수 ▲진료부장 - 류마티스내과 김윤성 교수 ▲교육수련부장 - 외과 김유석 교수 ▲대외협력실장 - 마취통증의학과 이현영 교수 ▲의료질관리실장 - 피부과 나찬호 교수 ▲의료정보실장 - 성형외과 최우영 교수가 3월 1일자로 함께 임명됐다.

## 조선대병원, 개원 55주년 맞아 새병원·첨단의료 도약 의지 밝혀

-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55년, 미래 100년 도약 다짐

- 공로패, 공로상, 장기근속상, 모범상 시상



조선대병원은 개원 55주년을 맞아 4월 15일 오후 3시 병원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수 이사장, 김춘성 총장, 강희숙 행정부총장, 최남규 병원장, 임성훈 치과병원장을 비롯해 보직

자 및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원기념식은 김이수 이사장, 김춘성 총장의 축사와 최남규 병원장 기념사를 시작으로 케이크 커팅식을 갖고 ▲총장 공로패(5명) ▲병원장 공로상(5명) ▲장기근속상(136명) ▲모범상(17명) 등 병원 발전을 위해 기여한 교직원에게 표창이 이뤄졌다.

최남규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조선대병원이 개원 55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환자 중심 진료와 공공의료의 책임을 이어온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한다”며 “병원 곳곳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의료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새병원 건립을 통해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 조선대병원, 로봇수술 800례 달성... 지역 암 치료 혁신 ‘가속화’

지난해 11월 700례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100례 추가... 가파른 성장세

전체 수술 중 고난도 암수술 비중 약 70%, 중증질환 치료 역량 입증

전문 인력·첨단시스템 기반의 ‘스마트 수술 환경’ 구축... 환자 만족도 제고



조선대병원이 지난 2월 6일을 기준으로 로봇수술 800례를 달성하며 지역 의료계의 첨단 수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2022년 4월 광주 최초로 4세대 첨단 로봇수술기인 ‘다빈치 Xi’를 도입해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한 이래, 2025년 11월 700례를 달성한 데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800례라는 고지를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 속에서도, 지역 환자들이 굳이 먼 길을 오가지 않고도 수준 높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고난도 암수술이 약 70%... “지역 암 치료의 핵심 거점”

조선대병원 로봇수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800례 달성은 단순히 건수 증가를 넘어 질적 성장을 동반하고 있다. 전체 수술 중 갑상선암, 전립선암, 위암, 신장암 등 고난도 암수술이 약 70%를 차지하며 중증질환 치료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광주·전남 최초 ‘경구 로봇 갑상선절제술’, ‘단일공 로봇 담낭절제술’, ‘로봇 생체 공여 신장절제술’과 호남·충청 최초 ‘로봇 간 이식 기증자 수술’을 모두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지역 내 독보적인 로봇수술 성과를 입증했다.

### 전문 인력과 첨단 시스템이 만든 ‘스마트 수술 환경’

이러한 가파른 성장의 배경에는 조선대병원만의 체계적인 ‘스마트 수술 시스템’이 있다.

단순히 첨단 장비인 ‘다빈치 Xi’를 도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고난도 수술 경험 이 풍부한 교수진과 로봇수술 전담 간호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시 협진 체계를 구축해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로봇수술 과정의 데이터를 축적 및 분석하여 수술 시간 단축, 출혈량 감소, 합병증 예방 등 구체적인 임상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는 환자에게는 빠른 회복을, 의료진에게는 효율적인 수술 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김유석 로봇수술센터장은 “로봇수술 800례 달성은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로 가지 않아도 정밀하고 안전한 암수술을 받을 수 있는 탄탄한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로봇수술 적응증을 확대하여 지역 환자들에게 더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최적의 수술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 전 병원장은 “의료 공백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성과를 일궈낸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며 “조선대병원은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의료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조선대병원, 고난도 최소침습 '전내시경적(단방향, Uniportal) 요추 유합술' 선도

약 1cm 내외의 단일 절개로 신경 감압, 디스크 제거, 유합술 시행... 고령 환자 수술 부담 낮춰  
조직 손상 최소화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흉터 거의 없어 미용 만족도 높아

조선대학교병원이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전내시경적(단방향, Uniportal) 요추 유합술'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며 척추 질환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척추 수술의 흐름은 절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정상 조직 손상을 줄이는 최소침습 수술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내시경적 요추 유합술은 약 1cm 내외의 단일 절개를 통해 신경 감압, 디스크 제거 및 케이지 삽입 등 유합의 핵심 과정을 시행하며, 이후 최소 절개를 통한 후방 고정술을 병행하는 고난도 최소침습 수술법이다.

특히 이 수술법은 피부 절개와 근육 손상을 극소화할 수 있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 미용적 만족도 또한 높은 것이 장점이다. 전신 질환을 동반한 환자나 수술 후 빠른 일상 복귀가 필요한 고령 환자에게도 폭넓게 적용 가능해 수술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다만, 좁은 단일 통로를 통해 모든 수술 과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집도의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고도의 술기 숙련도가 반드시 요구되는 대표적인 고난도 수술로 꼽힌다. 최근 내시경 기법과 수술 기구의 발전으로 내시경적 수술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케이지 삽입과 충분한 유합 안정성 확보 또한 가능해졌다.

조선대병원 신경외과 서종훈 교수는

“전내시경적 요추 유합술은 최소침습 수술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충분한 신경 감압과 안정적인 유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술”이라며, “지역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진료와 연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KOMISS)로부터 호남권 최초로 '척추내시경수술 국제교육센터'로 지정된 데 이어, 독일 리우스파인(RIWOspine)사로부터 '글로벌 우수 척추내시경 수술센터'로 지정되어 국내외 의료진에게 최신 수술법을 공유하고 교육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신경외과 서종훈 교수가 '단방향 요추 유합술'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치과교정과, 제43회 전공의 수료 증례 발표회 개최



조선대학교 치과교정과는 2월 21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1층 대강당에서 '조선대학교 치과교정과 제43회 전공의 수료 증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43기 전공의 수료를 기념하는 증례 발표회로, 발전기금 약정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날 제43기 문경은·이소윤 전공의는 대표 치료 증례를 발표하며 수련 과정에서 축적한 임상 경험과 치료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특강으로 19기 장성호 원장이 약정형 치료 효과에 관한 본인의 연구를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와 함께 진행된 발전기금 약정식에서는 윤용선·임현철·정동기 원장이 각각 5,000만 원을 약정했으며, 장성호 원장은 4,000만 원, 김은지·권용익 원장은 2,000만 원을 약정했다. 약정된 기금은 향후 치과교정학 연구와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조선대 교정과 동문회(무정회) 민상홍 회장은 무정회에 3,600만 원을 기탁했다. 해당 기탁금은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치고 무정회에 입회하는 신규 회원에게 구내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 풀패키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젊은 교정전문인들의 임상 기록 축적과 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

획이다.

조선대학교 치과교정과 임성훈 교수는 “이번 수료 증례 발표회는 전공의들의 학문적 성취를 공유하는 자리인 동시에, 선배 동문들의 후학 양성 의지를 확인한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과 동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수한 교정전문의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젠임플란트(주),  
조선대학교치과병원 구강스캐너 기증식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은 지난 4월 1일 (수), 이젠임플란트(주)로부터 구강 스캐너 TRIOS6 및 Primescan2(총 76,700,000원 상당)를 기증받고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증식에는 임성훈 치과병원장, 김희중 치과대학 학장, 문성용 구강악

안면외과장·임플란트센터장 교수가 참석했으며 이젠임플란트(주) 김주석 대표, 장승철 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에 기증된 구강스캐너 TRIOS6와 Primescan2는 고정밀 3D 구강 스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최신 장비로, 기존의 인상 채득 방식을 대체하여 보다 정

확하고 신속한 디지털 진료를 가능하게 한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은 기증받은 구강 스캐너를 활용해 환자 중심의 디지털 진료 환경을 한층 강화하고, 첨단 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FOLLOW THE CAMPUS

# 지금, 조선대학교를 팔로우할 시간

캠퍼스의 새로운 소식과 생생한 순간을 조선대학교 공식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01 인스타그램

02 페이스북

03 유튜브

04 카카오톡 채널

SINCE 1946 HUMANITY BEYOND the FUTURE  
휴머니티, 혁신의 미래 조선대학교



교원

2026학년도 2학기(26년 9월) 신입 교원

|               |                   |      |
|---------------|-------------------|------|
| 글로벌인문대학       | 문예창작학과            | 김기태  |
|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 컴퓨터통계학과           | 허지웅  |
|               | 식품영양학과            | 박세영  |
| 법사회대학         | 법학과               | 이재현  |
| 공과대학          | 토목공학과             | 한정호  |
|               | 항공우주공학과           | 문형민  |
|               | 항공우주공학과           | 김기덕  |
|               | 환경공학과             | 조경일  |
|               | 환경공학과             | 김건일  |
|               | 원자력공학과            | 임도영  |
| IT융합대학        | 전자공학과             | 서동현  |
|               | AI.SW학부(컴퓨터공학전공)  | 김준석  |
|               | AI.SW학부(컴퓨터공학전공)  | 허용해  |
|               | AI.SW학부(컴퓨터공학전공)  | 유재환  |
|               | AI.SW학부(정보통신공학전공) | 최동유  |
|               | AI.SW학부(정보통신공학전공) | 김성연  |
| 사범대학          | 생물교육과             | 최완규  |
|               | 생물교육과             | 이준범  |
| 의과대학          | 의학과               | 김치호  |
|               | 의학과               | 김은정  |
|               | 의학과               | 김세훈  |
|               | 의예과               | 이수은  |
|               | 의예과               | 김지호  |
|               | 의예과               | 최경환  |
|               | 간호학과              | 남궁혜인 |
| 약학대학          | 약학과               | 조정연  |
| 미술대학          | 미술학부(서양화전공)       | 문형선  |
| 연구처           | 연구처               | 김운섭  |

2026학년도 1학기(26년 8월) 명예 퇴직자

|      |                        |     |
|------|------------------------|-----|
| 미술대학 |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부(섬유패션디자인전공) | 박순천 |
|------|------------------------|-----|

2026학년도 1학기(26년 8월) 정년 퇴직자

|         |                      |     |
|---------|----------------------|-----|
| IT융합대학  | 전자공학과                | 고낙용 |
| 공과대학    | 기계공학과                | 성윤경 |
|         | 생명화학공학과              | 김준섭 |
|         | 환경공학과                | 전영남 |
| 글로벌인문대학 | 일본어과                 | 김희조 |
| 미술대학    |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부(실내디자인전공) | 윤갑근 |
| 의과대학    | 의예과                  | 임 용 |
| 자유전공학부  | 자유전공학부               | 김재경 |
|         | 자유전공학부               | 박금희 |
| 치과대학    | 치의예과                 | 고영무 |
|         | 치의예과                 | 유 훈 |
|         | 치의학과                 | 황호길 |

직원

2026학년도 1학기(26년 3월) 신입 직원

|                 |     |
|-----------------|-----|
| 교무처 학사팀         | 서태종 |
| 교육혁신원 전공진로길라잡이팀 | 조서윤 |
| 기획처 재정예산팀       | 윤수현 |
| 대학원 교학팀         | 이현웅 |
| 대학혁신사업지원단 혁신사업팀 | 장경제 |
| 입학처 입학관리팀       | 강현지 |
| 정보전산원 정보개발팀     | 곽민주 |
| 정보전산원 정보관리팀     | 정지웅 |
| 총무관리처 건축안전환경팀   | 백병우 |
| 총무관리처 기계전기팀     | 이도현 |
| 취업학생처 장학팀       | 이지영 |
| 취업학생처 학생복지팀     | 김경진 |

2026학년도 1학기(26년 8월) 정년 퇴직자

|                  |     |
|------------------|-----|
|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    | 강선영 |
| G-LAMP 사업단 행정지원팀 | 이 진 |

2026학년도 1학기(26년 8월) 특별 퇴직자

|       |     |
|-------|-----|
| 총무관리처 | 송문교 |
|-------|-----|



## 조선대 개교 80주년 기념 모금 캠페인 선포 함께 도약하는 100년의 길

‘CSU Again 7만2천’, ‘CSU 장미로드’, ‘One 4 Your Chosun’ 3대 테마  
구성원·동문·지역사회 함께하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 전개

조선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민립대학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기부 문화를 본격화한다.

조선대학교는 4월 23일 본관 총장실에서 김춘성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80주년 기념 모금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가 걸어온 8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대학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캠페인은 ▲CSU Again 7만2천 발전기금 ▲CSU 장미로드 ▲One 4 Your Chosun 총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기부 참여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CSU Again 7만2천 발전기금’은 1946년 설립 당시 7만 2천여 명의 설립동지가 모은 숭고한 민립 정신을 계승해, 구성원과 동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제2의 클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글로벌 리더 육성과 대학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One 4 Your Chosun’은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소액 기부 캠페인이다. 기부자는 월 1만 원의 기부를 통해, 1,000원으로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는 ‘학생드림(Dream)’ 중 하나를 선택해 후원할 수 있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7만 2천여 명의 염원으로 세워진 위대한 유산인 조선대학교가 미래 100년을 밝히는 새로운 빛이 되고자 한다”며, “장미원에 새겨질 기부자들의 이름이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고, 민립의 정신이 지역사회에 다시 한번 뜨겁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선대학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30만 동문과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연결되는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미래 100년을 향한 참여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CSU 장미로드’는 조선대학교의 장미원을 활용한 참여형 기부 프로젝트다. 기부자의 이름을 장미원 산책길에 새겨 그 뜻을 오래도록 기리고, 2001년 동문 기부로 시작된 장미원의 전통과 의미를 이어가는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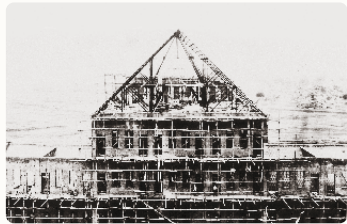


## 개교 80주년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캠페인

「80년 민립의 역사, 함께하는 조선대학교의 미래」

### CSU Again 7만2천

100년을 향한 동행



1946년, 7만 2천 명의  
시민이 세운 대학.

민립의 정신으로 걸어온 80년은  
이제 100년을 향합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하기

### CSU 장미로드

장미원에 나의 이름을



시민과 함께하는  
조선대학교 장미원.

봄마다 다시 피어나는 꽃들과 함께,  
기부자의 이름은  
그 길 위에 남습니다.



후원하기

### One 4 Your Chosun

하나로 더해지는 따뜻한 온기



#### 01. 천원의 아침밥

하루 천 원이 학생 한 명의  
아침을 책임집니다.

#### 02. 학생드림(Dream)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  
그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후원하기

### 기부 참여 방법

QR코드를 스캔하여 기부에 참여해 주세요.

- 1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
- 2 후원하기 클릭 후 기부약정서 작성
- 3 납입 방법 선택 후 후원하기

자동이체 / 무통장입금 - 신한은행 100-036-638130 예금주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동문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조선대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힘이 됩니다.

개교 80주년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

TEL. 062-230-6234 / FAX. 062-232-8977



## 故 김종중 명예교수, 시신기증·기부로 남긴 '마지막 수업'

평생 해부학 교육·연구에 헌신  
의학 발전과 병원 신축 위해 3천만 원 기부



의과대학 故 김종중 명예교수가 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고, 고인의 유지를 받든 유족이 발전기금 3천만 원을 기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참스승의 길을 남겼다.

지난 7월 13일 별세한 김 명예교수는 평생 해부학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며 수많은 의사를 양성했다. 고인은 생의 마지막에도 자신의 몸을 의학교육과 연구에 맡기며 제자들과 후학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남겼다.

시신기증은 의학도들이 인체의 구조를 직접 이해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의료인의 책임을 배우는 해부학 교육의 핵심적인 기반이다. 김 명예교수의 숭고한 뜻은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의학 연구와 의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고인은 2017년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뒤,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러한 나눔의 뜻은 생의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유족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조선대학교와 조선대학교병원에 발전기금 3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기금은 해부학 교육·연구 기반 강화와 조선대학교병원 신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 명예교수는 1974년부터 2016년까지 42년간 조선대 의과대학에 재직하며 해부학 교육과 연구에 매진했다. 또한 제58대 대한해부학회장을 역임하며 국내 해부학 연구와 학문 발전에도 기여했다.

대학 내에서는 교수평의회 의장과 보건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에는 초대 민주화운동연구원장을 맡아 대학의 민주적 가치와 지역사회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연구하고 계승하는 데 힘썼다.

김춘성 총장은 “김종중 명예교수님께서 평생 해부학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시며 수많은 의료인을 길러내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몸과 소중히 뜻을 의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남기셨다”며 “교수님의 숭고한 실천은 생명의 존엄과 의료인의 책임을 일깨우는 참스승의 가르침으로 우리 대학과 제자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고인의 뜻을 존중하고 시신기증과 발전기금 기부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함께해 주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고인의 뜻이 해부학 교육과 연구, 조선대학교병원의 발전으로 충실히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도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소중히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44년의 가르침, 다시 후학의 내일로

임동윤 명예교수, 'CSU Again 7만2천'에 500만 원 기부... 누적 기부액 1억 원 넘어

개교 80주년을 맞아 다시 시작된 나눔의 물결에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임동윤 명예교수가 뜻을 보탰다. 임동윤 명예교수는 올해 'CSU Again 7만2천 발전기금'에 500만 원을 기부하며, 대학에 전한 누적 기부액이 1억 원 이상에 이르렀다.

44년간 조선대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 몸담아 온 임동윤 명예교수에게 대학은 학문의 길을 열어준 터전이자 수많은 제자와 함께 성장한 삶의 무대였다. 그는 “교수의 진정한 명예는 자신의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믿음으로, 대학에서 받은 배려와 도움을 다시 후학에게 돌려주고자 꾸준히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마련하고,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부에 담았다. 평생 배우고 연구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학자의 길로 여겨 온 그의 철학이 후학을 향한 실천으로 이어진 것이다.

임동윤 명예교수는 후배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배우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선후배와 동문이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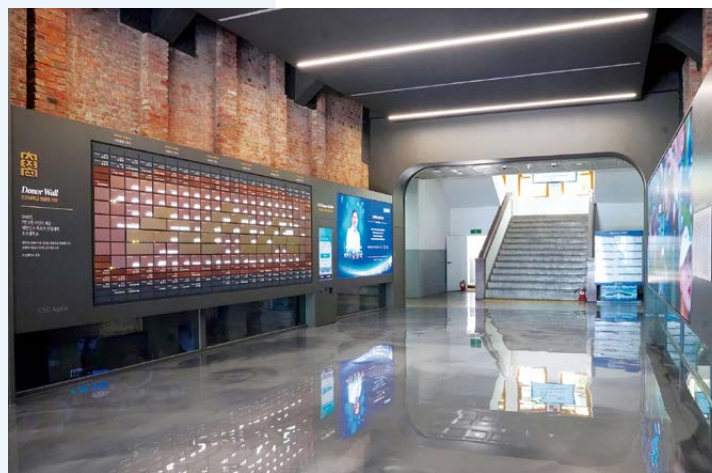
한편, 임동윤 명예교수는 2020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학교법인조선대학교 3기·4기 정이사를 역임했다.



##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공간, 새로워진 본관 1층

조선대학교가 대학의 상징이자 중심 공간인 본관 1층 로비를 새롭게 단장했다. 역사를 기억하는 '히스토리 월'과 나눔의 가치를 이어가는 '명예의 전당'이 조성돼, 대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나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히스토리 월'은 조선대학교의 역사와 주요 순간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역사관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해, 본관을 오가는 누구나 대학의 시작과 성장의 발자취를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대학 설립의 상징적 요소인 붉은 벽돌을 보존한 공간 구성에 디지털 콘텐츠를 더해 대학의 역사와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발전기금 명예의 전당'에는 대학과 동행해 온 기부자들의 이름과 나눔의 기록을 담았다. 기부자의 뜻을 오래 기억하고 예우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부문화를 이어가는 공간이다. 새롭게 도입된 디지털 키오스크에서는 카드 결제로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 후 사진을 촬영해 나눔의 순간을 디지털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다.



## 故 서관영 님 유가족, 조선대에 발전기금 1천만 원 기부

고인의 교육 사랑과 나눔의 뜻 기려...  
'천원의 아침밥' 통해 학생 지원



기부금 1천만 원은 조선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 모금 캠페인 'One 4 Your Chosun 천원의 아침밥' 기금으로 전달됐다. 학생들이 든든한 아침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故 서관영 님의 아들 서병찬 씨는 “아버지께서는 생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학교를 짓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조선대학교 학생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지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춘성 총장은 “교육을 향한 고인의 소중한 뜻을 조선대학교에 전해주시는 유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고인의 나눔과 사랑이 학생들의 성장과 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부금의 의미를 소중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생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고(故) 서관영 님의 뜻이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졌다.

조선대학교는 6월 4일 본관 총장실에서 '故 서관영 님 유가족 발전기금 기부식'을 개최했다.

故 서관영 님은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조선대학교와 인연을 맺었다.

고인은 생전 교육의 가치와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깊이 강조했으며, 학교 설립에 대한 소망을 가족들에게 자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이러한 고인의 뜻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의과대학 4회 졸업생, 졸업 50주년 맞아  
모교에 발전기금 1억 5천만 원 전달

“50년 의사의 길, 다시 모교 품으로” 선배들의 헌신과 나눔 이어져

1976년 졸업한 의과대학 제4회 졸업생들이 졸업 50주년을 맞아 모교를 방문하고 발전기금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최근 열린 ‘의과대학 제4회 졸업 50주년 기념 모교 방문 및 발전기금 전달식’에서는 제4회 졸업생과 대학·병원 관계자, 재학생 등이 참석해 지난 50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의과대학의 미래 발전을 함께 다짐했다.

안영준 의과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선배님들께서 걸어오신 50년의 헌신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이끈 소중한 자산”이라며 “오늘 전달해 주신 뜻깊은 발전기금은 학생 교육과 연구 환경을 한층 더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4회 졸업생을 대표한 오세원 추진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젊은 시절 꿈을 키웠던 모교를 50년 만에 다시 찾으니 감회가 새롭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 준 모교 조선대학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뜻을 모았다. 후배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학생 대표 정최다빈 학생은 감사 인사를 통해 “선배님들의 나눔과 격려는 후배들에게 큰 책임과 용기를 안겨준다”며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본받아 지역사회와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교육·연구 환경 개선과 장학금 지원 등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활용될 예



정이며,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은 향후 조성될 명예의 전당에 게시될 계획이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은 매년 졸업 50주년을 맞은 동문들을 초청해 모교 방문과 발전기금 기부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선배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의학교육 혁신과 지역 의료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



발전기금 신규 약정자

2026. 2. ~ 2026. 7.

단위: 원

| 약정자                  | 약정금액        | 약정자               | 약정금액      |
|----------------------|-------------|-------------------|-----------|
| (주)덴티움               | 157,560,000 | 이정호(4회)           | 5,000,000 |
| 백철수                  | 100,000,000 | 이철진(4회)           | 5,000,000 |
| (재)조선대학교치과대학교육문화재단   | 53,496,000  | 임동윤               | 5,000,000 |
| 신상국(주식회사 남도연구소)      | 30,000,000  | 장남국(4회)           | 5,000,000 |
| (사)대한배구협회            | 27,500,000  | 장동주(4회)           | 5,000,000 |
| 김길연(마일로스 주식회사)       | 20,000,000  | 장미축제 상인대표 강효원     | 5,000,000 |
| 조선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18,150,000  | 정병연(4회)           | 5,000,000 |
| 김상훈                  | 14,400,000  | 정춘혜(4회)           | 5,000,000 |
| 노영식(4회)              | 10,000,000  | 최근철(4회)           | 5,000,000 |
| 서관영(서한나)             | 10,000,000  | 한국유러소프트/자산불량장-김평중 | 5,000,000 |
| 오세원(4회)              | 10,000,000  | 한세준(4회)           | 5,000,000 |
| 임 섬                  | 10,000,000  | 홍성재(4회)           | 5,000,000 |
| 조선대학교신용협동조합          | 10,000,000  | 홍찬표(4회)           | 5,000,000 |
| 조은희                  | 10,000,000  | (주)덕신EPC          | 4,000,000 |
| 초이스푸드(조우영)           | 10,000,000  | 김성기               | 4,000,000 |
| 하상호(4회)              | 10,000,000  | 구인엽(구성빈장학금)       | 4,000,000 |
| 하충식-사회복지법인 한마음국제복지재단 | 10,000,000  | 김광형(4회)           | 3,000,000 |
| 한공창(4회)              | 10,000,000  | 김왕수(4회)           | 3,000,000 |
| (주)아이에스피건축사무소-이주경    | 5,000,000   | 김태영(4회)           | 3,000,000 |
| (주)제너시스비비큐           | 5,000,000   | 박재균(4회)           | 3,000,000 |
| 구자봉(4회)              | 5,000,000   | 임윤배(4회)           | 3,000,000 |
| 김영철(4회)              | 5,000,000   | 조성문(4회)           | 3,000,000 |
| 김종범(4회)              | 5,000,000   | 주식회사 아텍           | 3,000,000 |
| 김철우(4회)              | 5,000,000   | 천강우(4회)           | 3,000,000 |
| 김형수(4회)              | 5,000,000   | (주)대상메디칼          | 2,000,000 |
| 문영래(문영래정형외과 병원)      | 5,000,000   | 문소현               | 2,000,000 |
| 박훈명(4회)              | 5,000,000   | 양 훈               | 2,000,000 |
| 심국식(4회)              | 5,000,000   | 인원산업(주)           | 2,000,000 |
| 윤은영                  | 5,000,000   | 주식회사 엠앤케이         | 2,000,000 |



| 약정자               | 약정금액      |
|-------------------|-----------|
| 허진관               | 2,000,000 |
| 임종국               | 1,506,000 |
| 송상기               | 1,200,000 |
| 조태오               | 1,200,000 |
| 김수관               | 1,000,000 |
| 김종국               | 1,000,000 |
| 김혜정               | 1,000,000 |
| 위성국               | 1,000,000 |
| 임서아               | 1,000,000 |
| 조광희               | 1,000,000 |
| 하미순               | 1,000,000 |
| (사)한국음악협회 광주광역시지사 | 900,000   |
| 나주수산              | 650,000   |
| 이계옥               | 650,000   |
| 김용선               | 600,000   |
| 노순국               | 600,000   |
| 문우영               | 600,000   |
| 한국대학배구연맹          | 600,000   |
| 한국핸드볼연맹           | 600,000   |
| 강하리               | 500,000   |
| 김영지               | 500,000   |
| 나세희               | 500,000   |
| 나인찬               | 500,000   |
| 양고승               | 500,000   |
| 울림(김선영)           | 500,000   |
| 이희영               | 500,000   |
| 손홍래               | 300,000   |
| 이종대               | 300,000   |
| 조선의대관현악반          | 300,000   |
| 임성훈               | 240,000   |
| 백준민               | 130,000   |

| 약정자 | 약정금액        |
|-----|-------------|
| 고태은 | 100,000     |
| 공태임 | 100,000     |
| 권범준 | 100,000     |
| 김동호 | 100,000     |
| 남상웅 | 100,000     |
| 문혜진 | 100,000     |
| 박정서 | 100,000     |
| 박한규 | 100,000     |
| 신기록 | 100,000     |
| 양재훈 | 100,000     |
| 오승원 | 100,000     |
| 오윤아 | 100,000     |
| 윤건노 | 100,000     |
| 윤도경 | 100,000     |
| 윤예원 | 100,000     |
| 이승철 | 100,000     |
| 이원용 | 100,000     |
| 이은미 | 100,000     |
| 이의준 | 100,000     |
| 임수찬 | 100,000     |
| 장지예 | 100,000     |
| 전자현 | 100,000     |
| 정권철 | 100,000     |
| 정해인 | 100,000     |
| 조하영 | 100,000     |
| 최진솔 | 100,000     |
| 최환영 | 100,000     |
| 심의열 | 50,000      |
| 배강빈 | 20,000      |
| 이현정 | 100         |
| 합 계 | 712,752,100 |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참여 안내

기금을 보내주신 분께는

- 3천만 원 이상 출연하신 분들의 성함을 우리 대학교 명예의 전당(본관 중앙 현관)에 새겨 그 뜻을 기립니다.
- 우리 대학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소개합니다.
- 우리 대학에서 부여하는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기금을 출연하신 분은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개인기부(개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 2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액의 15%,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소득세법 제34조)

개인기부(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 개인사업자가 기부액을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법인세법 제24조)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약정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송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약정하신 금액은 일시 납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 현물, 주식, 부동산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00-036-638130 (예금주: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문의: 대외협력처 홍보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선대길 146, 본관 2층 홍보팀

☎ 062-230-6234 ✉ fund@chosun.ac.kr





휴머니티, 혁신의 미래 조선대학교  
**HUMANITY BEYOND *the* FUTURE**  
CHOSUN UNIVERSITY